

退溪의 著書와 그 刊行

〈朱子書節要를 中心으로〉

~退溪書誌의 研究 其二~

專任講師 尹 炳 泰

〈目 次〉	
緒 言	IV. 朱子書節要의 內容과 引用書
I. 退溪의 著作	V. 朱子書節要의 版本과 그 存本
II. 朱子書와 退溪	VI. 朱子書節要 影響의 著述
III. 朱子書節要의 成立	結 言

緒 言

이 研究는 前稿¹⁾에 이어 두번째로 發表하는 退溪書誌에 관한 研究이다. 前稿에서 는 머리에 退溪의 生涯에 대하여 簡單하게 言及하였다. 그리고 退溪의 著述에 관하여는 《退陶先生言行通錄》에 收錄한 〈年譜〉에서, 著述한 年度順으로 추려내어 引用한 데 focussed.

마지막으로 붙인 《聖學十圖》에 관한 글에서는 그 成立과 內容, 또 引用書에 이어 《聖學十圖》의 異版本 28種을 紹介한 다음 그 存本을 밝힌바 있다.

이 研究에서는 退溪의 著作으로 알려진 여러가지 著作을 먼저 紹介하고, 그 中에서도 가장 중요한 退溪의 著作의 하나인 《朱子書節要》에 대하여 書誌學的인 究明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이 책에 대하여는 그 成立의 背景과 內容의 引用書, 記錄이나 實物이 남아 있는 異版本과 그 存本을 밝히며, 나아가서는 이 책의 影響으로 이루어진 後學들의 著作까지 言及하고자 생각한다.

이 研究를 이룩하기 위한 具體的인 方法과 그 制限點에 대하여는 前稿와 같으므로 그에 대한 言及은 省略하기로 하고, 우선 退溪의 著作에는 어떠한 것이 남아 있나를 알아보기로 한다.

1) 尹炳泰, “退溪書誌의 研究,” 退溪學研究, 第四輯, (1976.12), pp.87~152, 韓國의 哲學, 第五號, (1977.3), pp.87~152.

I. 退溪의 著作

1. 年譜의 記錄

退溪의 著作을 그의 <年譜>²⁾에서 추려본다면 《天命圖說》을 改訂한 이후 모다 32種에 이른다. 이 <年譜>에서 든 32種의 著作中에는 그의 全集이라 할 수 있는 《退溪先生文集》속에 收錄된 著作된 것도 있으나, 분량이 너무 많아 미처 收錄 못한 것도 있다.

2. 退溪全書의 收錄分

위의 年譜에서 빠진 著作들은, 成均館大學校의 大東文化研究院에서 두차례에 걸쳐 影印한 《退溪全書》속에 약간 收錄되어 있다. 1958年(檀紀 4291年)에 初版으로 刊行한 影印本³⁾에 收錄한 著作들을 보면, 모두 16種으로 全2冊의 巨秩 속에 들어 있다. 이제 그 차례대로 書名과 內容을 알아본다.

① 退溪先生文集～ 卷首에 <目錄> 2卷이 있고, “內集”이라고 불리우는 文集의 本文 49卷이 있다. 底本으로는 初刊本과 重刊本을 섞어서 쓰고 있다.

② 退溪先生文集別集～ <目錄>과 卷之一 1卷단의 1冊分이 들어 있다.

③ 退溪先生文集外集～ 역시 <目錄>과 卷之一 1卷단의 1冊分이 들어 있다.

④ 退溪先生文集續集～ 卷首의 <目錄>과 本文 8卷 合하여 4冊分이 收錄되어 있다.

⑤ 退陶先生自省錄～ 卷之一의 1卷 1冊分의 宣祖18年乙酉(1585)冬 羅州牧開刊本이 收錄되어 있다.

⑥ [四書釋義]～ <大學釋義>·<中庸釋義>·<論語釋義>·<孟子釋義>의 네가지를 合綴한 1冊分이 실려 있다.

⑦ 啓蒙傳疑～ 不分卷 1冊分이 들어 있다.

⑧ 宋季元明理學通錄～ <目錄>과 本文 11卷 모두 5冊分이 들어 있다.

⑨ 宋季元明理學通錄外集～ “宋季諸子”만을 다룬 不分卷 1冊分이 들어 있다.

이상과 같은 退溪의 著·編作 以外에도 退溪의 傳記資料와 關聯資料들이 附錄으로 더 添加되어 있으니 그 書名과 內容 그리고 차례는 아래와 같다.

⑩ 退溪先生年譜～ 卷首에 <退溪先生世系之圖>가 있고 本文 3卷 모두 2冊分이 들어 있다.

⑪ 退陶先生言行通錄～ <目錄>과 本文 8卷 合5冊分이 들어 있다.

2) 李滉, 增補 退溪全書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1, 影印本), 四, pp. 113~152. (以下「影印本」으로 略稱한다.)

3) 李滉, 退溪全書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58, 影印本), 2冊.

- ⑫ 退溪先生言行錄~〈目錄〉과 本文 6卷 모두 3冊分이 들어 있다.
- ⑬ 退溪先生輓祭錄~〈目錄〉과 本文〈上·下〉 합1冊分이 들어 있다. 이 影印本의 다른 底本이 모다 木板本인데 비하여, 이 책만이 鉛印本이다.
- ⑭ 陶山及門諸賢錄~ 卷首에〈目錄〉과〈文純公退陶李先生墓碣銘〉등과 本文 5卷 합 2冊分이 收錄되어 있다.
- ⑮ 嶠南賓興錄~ 本文 2卷과 “類村日記”이라고 알려진〈附類村致祭時日記〉 1卷 모두 1冊分이 들어 있다.
- ⑯ 退溪先生文集攷證~ 8卷 합4冊分이 들어 있다.
- 1971년에 刊行된《增補 退溪全書》는 初刊本의 2冊을 4冊으로 다시 分冊하고 새로이 아래의 3種을 1冊으로 묶어 모두 5冊으로 刊行한 것이다. 이제 그 차례대로 書名과 內容을 알아 본다.
- ⑰ 陶山十二曲~ 一·二와〈漁父歌〉 그리고〈漁父短歌〉 합1冊의 親筆稿本을 底本으로 收錄하였다.
- ⑱〔三經釋義〕~〈詩釋義〉·〈書釋義〉·〈周易釋義〉를 收錄하였다.⁴⁾ 版心題는 모다 改作한 것이다. 底本은 木板本이다.
- ⑲ 李子粹語~〈目錄〉과 本文 4卷 합2冊分을 收錄하였다. 底本은 역시 木板本이다. 위와 같은 19種은 모다 우리나라에서 刊行된 책들을 縮少 影印한 것이다.

3. 李退溪全集의 收錄分

退溪의 著作들은 日本에서도 여러가지가 刊行되었다. 그 중에서 代表的인 책들은 阿部吉雄가 編하고, 1975년에 東京에 있는 李退溪研究會가 發行한《日本刻版 李退溪全集》上·下 2冊 속에 收錄되어 있다.⁵⁾ 이 책은 四六倍版의 巨秩로, 머리에는 阿部吉雄의 序와 자세한 日本文 解題, 그리고 金聲翰의 韓國語譯 解題가 실려 있다. 이 책에 收錄된 책들을 차례대로 書名과 內容을 알아본다.

- ① 朱子書節要~〈總目〉과 各 卷首에 있는〈諸子目錄〉 그리고 本文 20卷 합하여 20冊分을 收錄하였다.
- ② 延平李先生師弟子答問~“延平答問”이라고 略하여 부르기도 하는 이 책은, 卷首에〈延平李先生答問後錄〉이 있고, 다음에 本文이, 이어〈延平答問補錄〉등이 있는 全2冊分이 들어 있다.
- ③ 退溪書抄~ 卷首에〈目錄〉과〈退溪先生年譜〉가 있고, 이어 本文 10卷, 모다 10

4) 影印本 五에 있는 順序는 筆者가 實査한「經書釋疑」라는 外題가 있는 一本에서는 周易釋義·詩釋義·書釋義의 順序로 되어 있다.

5) 李滉, 日本刻版 李退溪全集(上·下), 阿部吉雄 編(東京:李退溪研究會, 1975) 2冊.(以下「日本影印本」이라 略稱한다.)

冊分이 收錄되어 있다.

- ④ 天命圖說～ 不分卷 1冊分이 들어 있다.
- ⑤ 聖學十圖～ 不分卷으로된 〈聖學十圖〉에다 合刊되어 있는 〈戊辰封事〉 不分卷 合하여 1冊分이 들어 있다.
- ⑥ 啓蒙傳疑～ 4卷 合3冊分을 收錄하고 있다.
- ⑦ 退溪先生自省錄～ 不分卷 2冊分을 收錄하고 있다.
- ⑧ 朱子行狀～ 退溪輯注 不分卷 1冊分이 들어 있다.
- ⑨ 西銘考證講義～ 不分卷 1冊分을 收錄하였다.
- ⑩ [七先生遺像贊]～ 不分卷 1冊分이 실려 있다.
- ⑪ 心經附註～ 머리에 〈心經總目〉·〈心學圖〉등이 있고, 이어 本文 4卷 그리고 〈心經後論〉이 있는 모두 4冊分이 收錄되어 있다.

以上 모두 11種이나 되는 著作들 속에는 退溪의 著作을 日本人이 編纂한 책과 退溪의 間接著作도 들어 있다. 한편 國內에서는 單行本으로는 刊行되지 아니한 著作들이 들어 있어 매우 貴重한 退溪研究資料를 提供하여 주고 있다.

4. 韓國古書綜合目錄의 記錄

위에서 든 두가지 影印本에 收錄된 退溪의 著作을 보면, 모두 27種이나 된다. 그러나 이 밖에도 退溪의 著作이나 그와 관계되는 著作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退溪의 著作들을 가장 많이 收錄한 書誌를 들라고 한다면 아마 筆者가 編纂한 《韓國古書綜合目錄》을 들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⁶⁾

이 目錄에는 現存하고 있는 책으로서 여러 圖書館이나 個人收藏分中 그 存本이 알려진 著作만을 收錄하였으며, 그 所藏處까지도 밝히고 있다. 退溪의 著作들은 索引의 “李滉”에서 쉽사리 찾아낼 수가 있으나 索引에서 漏落되거나 著者表示가 本文 속에서 記錄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약간 장황한 느낌은 있으나, 다른 退溪研究家를 위하여 이 目錄 속에서 退溪의 著作과 退溪關係 著作들의 書名 單을 抄記하여 提供하고자 생각한다. 刊本과 寫本의 區別은 하지 않는다.

- | | |
|-----------|-------------|
| 1. 康節詩帖 | 7. 古鏡重磨方 |
| 2. 啓蒙傳疑 | 8. 老先生遺墨 |
| 3. 啓蒙翼傳 | 9. 道東錄 |
| 4. 溪門喪祭問答 | 10. 大寶箴 |
| 5. 溪山記善錄 | 11. 陶山歌詞 |
| 6. 溪山雜詠 | 12. 陶山及門諸賢錄 |

6) 尹炳泰 編,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國會圖書館, 1968), 1439, 72p.

13. 陶山記
14. 陶山錄
15. 陶山六曲
16. 陶山書堂記
17. 陶山詩帖
18. 陶山十二曲
19. 陶山遺墨
20. 梅花詩
21. 明宗行狀草
22. 戊辰封事
23. 四端七情分理氣往復書
24. 師門手簡
25. 四書釋義
26. 四時吟
27. 四七續編
28. 三經四書釋義
29. 三經釋義
30. 三先生遺書
31. 西銘考證講義
32. 先生手蹟
33. 聖學圖
34. 聖學十圖
35. 宋季元明理學通錄
36. 松齋詩集(編作)
37. 授受錄
38. 心經講錄刊補
39. 心經附註
40. 心經附註釋義
41. 心經釋疑
42. 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
43. 兩先生言敬撮要
44. 兩先生往復書
45. 語錄解
46. 漁父歌
47. 易學啓蒙傳疑
48. 延平李先生師弟子答問
49. 禮書類編
50. 龍門道中作
51. 李子書節要
52. 李子粹語
53. 李退溪書抄
54. 李退溪柳西厓先生事蹟抄錄(被傳)
55. 自省錄
56. 朱書節要
57. 朱子書節要
58. 朱子書節要文抄選
59. 朱子語類節要
60. 朱子語類編
61. 朱子增損呂氏鄉約
62. 朱子行狀
63. 朱子行狀輯注
64. 中華語錄註解
65. 天命圖說
66. 退溪高峰兩先生往復書
67. 退溪記善錄
68. 退溪洞中族契立議
69. 退溪史傳草
70. 退溪先生歌詞
71. 退溪先生溪山實記
72. 退溪先生年譜(被傳)
73. 退溪先生道德歌
74. 退溪先生洞中族契立議
75. 退溪先生禮說類編
76. 退溪先生梅花詩帖
77. 退溪先生門人錄(關聯)
78. 退溪先生文集

- | | |
|-----------------|-------------------|
| 79. 退溪先生文集抄 | 95. 退溪全書 |
| 80. 退溪先生三經釋義 | 96. 退溪學說反對上疏文(關聯) |
| 81. 退溪先生喪祭禮答問 | 97. 退陶經義 |
| 82. 退溪先生書節要 | 98. 退陶梅花詩 |
| 83. 退溪先生書節要劄疑 | 99. 退陶言行錄 |
| 84. 退溪先生聖學十圖 | 100. 退陶書 |
| 85. 退溪先生總集 | 101. 退陶先生經說 |
| 86. 退溪先生手蹟 | 102. 退陶先生書 |
| 87. 退溪先生言行錄(被傳) | 103. 退陶先生自省錄 |
| 88. 退溪先生言行通錄 | 104. 退陶言行通錄 |
| 89. 退溪先生遺墨 | 105. 退陶遺墨 |
| 90. 退溪先生仁宅歌 | 106. 退書百選 |
| 91. 退溪先生自省錄 | 107. 鄉約 |
| 92. 退溪語錄 | 108. 晦菴書節要 |
| 93. 退溪遺蹟 | 109. 晦菴先生語錄類要 |
| 94. 退溪雜記 | |

以上과 같이 모두 109種의 退溪著作 및 關聯著作의 書名이 알려졌다. 이 書目 속에는 20과 98의 경우와 같이 書名만 보아도 同一著作이 分明한 것도 있기는 하나, 卷首題가 다르므로 因하여 採錄된 것도 있다. 이렇게 內容이 같으면서 書名에 약간의 異同이 있는 것은, 이 研究가 進行됨에 따라 차차 밝혀지게 될 것이다. 또 書名이 같더라도 版本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 역시 차차로 밝혀지게 될 것이다.

5. 새로이 알려지는 著作들

退溪에게는 《韓國古書綜合目錄》에 의하여 알려진 以外에도, 最近에 繼續 새로운 著作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한 例가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 晩松文庫에서 整理中에 찾아낸《東國名賢事蹟》과《迎鳳志》이다. 특히 後者의 경우는 著作 보다도 退溪의 關聯資料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책 속에 退溪의 識文이 들어 있는 壬辰戰前 木活字本 이라는데 意義가 크다.

또 退溪가 序·跋文을 쓴 책에는, 그의 親著·編書 以外에도 많이 남아 있다. 그 序·跋文도 《退溪先生文集》속에서 거의 大部分을 볼 수가 있다. 또 退溪에게는 序·跋文을 짓지않아도 實地로 編纂한 책이 많다. 그 한 例가 《錦溪集》이다. 이러한 編書도 차차로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 밖에도 退溪의 도움으로 刊行된 책도 많이 있으며, 著編作중에는 佚書가 된 版本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佚書가 된 책에 관한 情報도 곧 刊行될 《朝鮮佚書誌》⁷⁾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國內외의 여러 書誌作業이 進行됨에 따라 退溪의 著作에 관한 全貌는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II. 朱子書와 退溪

1. 朱子書와의 接觸

退溪의 學問生活에 있어서 가장 影響을 미쳤다는 先學을 든다면, 宋의 巨儒인 朱熹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朱熹는 孔子의 道統을 이어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만큼 有名한 學者이며 著書도 많이 남기고 있다. 이러한 著書中에는 集書를 集註한 것에서 비롯 하여 여러가지가 알려져 있다.⁸⁾

이러한 朱熹의 著書는 우리나라에도 일찍부터 들어와 많이 流布되었으며, 읽히고 있었고, 또 刊行되었다. 儒學을 國學으로 살고 있었던 朝鮮朝에 내려와서는 朱熹의 著作을 中央에서 官의 힘으로 여러번이나 刊行한바 있다.⁹⁾ 이렇게 官에서 刊行한 朱熹의 著作들의 底本은 明에서 보내어 온 책도 있거니와, 朝鮮朝의 여러 王이나 臣下들의 請으로 賀來한 경우가 여러번 있었던 것은 《實錄》과 그 밖의 여러 史料로서 쉽사리 찾아낼 수가 있다.

朱熹의 所著中 單行本은 그만 두고라도, 그의 詩文만을 모아 編纂한 책을 들라면 《朱文公集》이나 《朱子大全文集》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退溪의 生存時에도 이들 두가지 책이 刊行되었으니, 前者는 中宗10年(1515)에, 그리고 後者는 中宗 38年(1543)에 刊行되었다.

退溪가 實地로 본 책은, 後者의 《朱子大全文集》인 것이, 그가 編纂한 《朱子書節要》의 〈序〉에 의하여 알려졌다. 그 〈序〉에 따르면

…嘉靖癸卯中 我中宗大王 命書館 印出頒行 臣滉 於是始知有是書而求得之¹⁰⁾

라 하여, 嘉靖 22年癸卯 즉 中宗38年(1543)에 中宗이 校書館에 命하여 印出한 다음

7) 尹炳泰 編, 朝鮮佚書誌 (未刊行 原稿).

8) 朱熹, 朱子大全 (서울: 曹龍承, 1977, 影印本), 人, p.861. (以下「大全」이라 略稱한다.)

9)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에 보면 索引에서 많이 찾아낼 수 있다.

10) 日本影印本, 上, p.3.

頒布한 책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때가 곧 退溪의 나이 43歲였을 때이다. 退溪는 그의 <年譜>에 따르면, 이 해(1543)에 司憲府 掌令·宗親府 典籤·典設司守·成均館 司藝·兼 承文院 校勘·侍講院 弼善·司僕寺 僉正 그리고 成均館 司成 등을 지내고 있었다.¹¹⁾ 이 때 退溪는 《朱子大全》을 下賜받고도 바빠서인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아니하였던 것 같다.

2. 朱子書의 耽讀

退溪가 《朱子大全》을 精讀하기 시작한 것은, 病으로 因하여 溪上으로 돌아가서 있으니, <朱子書節要序>에

· 猶未知 其爲何等書也 因病罷官載歸溪上 得曰閉門靜居而讀之…¹²⁾

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病으로 官職을 사양한 것은 여러 번 있었으나, 《朱子大全》을 精讀하기 시작하였을 時期를 그의 <年譜>에서 미루어 본다면, 아마도 明宗元年(1546)에 退溪의 東巖에 養眞庵을 짓고난¹³⁾ 다음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鶴峯 金誠一이 쓴 것을 인용한 《言行通錄》에

…先生 嘗得朱子全書于都下 自是閉戶 靜觀歷夏不輟 或以暑熱致傷…¹⁴⁾

이라 있는 것을 보면, 《朱子大全》을 求하자마자 더위에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열심히 읽은 것을 알 수가 있다.

退溪가 性理學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19歲時에 《性理大全》을 試讀하고난 다음¹⁵⁾이라 할 수 있겠지만, 특히 學問에 뜻을 두기 시작한 것은 《朱子大全》을 읽고난 다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金富倫의 記錄을 인용한 《言行通錄》에

…余自少有志於學 不可謂 無學問之功 然不得與明師友…自近年 讀朱子大全後 稍有見處…¹⁶⁾

라고 말씀한 것이 있는 것을 보아 짐작 할 수가 있다.

退溪가 《朱子大全》중에서도 朱熹의 書札에 힘을 기울인 것은, 그의 글속에서 얻은 바가 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朱子大全》을 읽고 난 다음에 쓴

· 自是 漸覺其言之有味 其義之無窮 而於書札也 尤有所感焉…

11) 影印本, 四, p. 120.

12) 日本影印本, 上, p. 3.

13) 影印本, 四, p. 120.

14) 上揭書, p. 26.

15) 上揭書, p. 23.

16) 上揭書, p. 24.

라는 〈朱子書節要序〉 속의 退溪親書 속에 나타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夢村 金 暉가 記錄한 바를 引用한 《言行通錄》에

…余觀之 無踰於朱子書…¹⁷⁾

라 한 것과, 또 鶴峯이 記錄한 글에

…晚年專意朱書 平生得力處 大抵皆自此書中發也¹⁸⁾

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3. 朱子書札에의 心醉와 教育

退溪가 《朱子大全》을 읽고, 그 중에서도 그의 書札에 心醉하였던 것은, 위의 事蹟에서도 대체로 짐작할 수 있지만, 後述하는 바와 같이 《朱子書節要》를 編纂하게 된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心醉의 정가도 느껴 정도 였는가 하면 아래의 몇가지 일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첫째는 朱熹의 書札을 베끼고 新印本이 나올때마다 校讎한 일이다. 鶴峯이 記錄한 글에

先生家 有朱子書 寫本一帙 卷帙甚舊 字畫幾剝 乃讀而 然也 其後人 多印出 每得新帙 必校 讎點竄…¹⁹⁾

라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寫本을 가지고 사람들의 質問에도 應答 하였던 것도 알 수 있으니 같은 記錄에

…人或質疑問難 則必授是書而答之 ²⁰⁾

라한 것을 보아 짐작할 수 있다.

둘째는 弟子들을 가르칠 때에 朱熹의 書札을 教科書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李 德弘의 記錄을 引用한 《言行通錄》의 글에

先生教人 先之以小學 次及大學 次及心經 次及語孟 次及朱書 而後及諸經²¹⁾

이라 하여, 《小學》·《大學》·《心經》·《論語》·《孟子》 다음에 “朱子書” 즉 朱熹의 書札 (그 節要이지만)을 끝내고야 經書를 배우게 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차례로 退溪가 教育을 實施한 것은, 그의 여러 弟子의 傳記資料를 더듬어 보아도

17) 上揭書, p. 26下.

18) 上揭書, 同面.

19) 上揭書, 同面.

20) 上揭書, 同面.

21) 上揭書, p 31上.

알 수 있다.

그 한 例로 鶴峯 金誠一의 경우를 들자면, 그는 19歲時에 退溪의 門下生이 되어, 21歲에 《大學》과 《心經》을 指導받았으며, 25歲時에 《朱子書節要》를 受講하였다.²²⁾

이와 같은 退溪의 教育課程은 그의 後學에도 영향이 약간 끼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한 例로서 大山 李象靖의 경우를 들 수 있다. 李象靖은 14歲에 密庵 李先生에게 師事하였는데, 그는 처음에 《小學》과 《孟子》를 배웠으며, 19歲에 《論語》를 읽었고, 21歲時에 《心經》을 읽고, 그 다음 해에 《朱子書節要》를 읽었다. 退溪가 教育을 行한 順序에 약간의 차는 나지만 대체로 같았음을 알 수가 있다.

셋째로는 退溪가 朱子의 書札을 家訓으로 삼은 일이다. 이는 “家書”를 引用한 《退溪先生言行錄》의 글에 보이니, 거기에

…晦庵書 不但寫之兼須尋究玩味 有來曉處 付標待問可也²³⁾

라 하여, 當時 集慶殿 參奉으로 있던 長子 絜에게 나린 글이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Ⅲ. 朱子書節要의 成立

이상과 같이, 退溪가 心醉하여 愛讀하였고, 또 質地 教科書로까지 使用하였으며, 家訓으로까지 言及하였던, 朱熹 書札의 節要是 언제 어떻게 成立하였는가 하는 일이 궁금하다.

이를 究明하기 위하여, 우선 編纂動機를 살펴보고, 編纂의 過程을 살펴보기 爲 底本을 먼저 알아보고, 그 作業順序에 따라 批點·抄寫·對校의 經過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어서 本文의 完成, 序文과 目錄의 完成 그리고 書名에 關한 일까지도 言及하기로 한다.

1. 編纂動機

退溪가 이 책을 編纂하게 된 動機는 그 〈序〉에서

…就其全書而論之 如地負海涵 雖無所不有 而求之難得其要 至於書札 則各隨其人材稟之高下 學問之淺深… 顧其篇帙浩穰 未易究覈 兼所載弟子之問 或不免有得有失… 就求其尤關於學問 而切於受用者 表而出之 不拘篇章 惟務得要 .²⁴⁾

라 하여, 《朱子大全》이 너무 廣汎하나 그 要點을 얻기 어렵고 다만 그 속의 書札만이 學問에 關하여 弟子들과 問答한 것이 들어 있어, 이들 속에서 學問에 요긴한 것

22) 金誠一, 鶴峰全集(原文) (서울: 鶴峰金先生紀念事業會, 1976), p.205.

23) 影印本, 四, p.193.

24) 日本影印本, 上, p.3~4.

만 추린 點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編纂動機에 대하여는 弟子들이 편찬한 그의 〈年譜〉에서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²⁵⁾ 《節要》를 最初로 刊行한 黃俊良이 쓴 《節要》의 〈跋文〉이나 그 보다 뒤에 쓴 奇大升의 〈跋〉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後代에 내려와서 편찬된 《海東文獻總錄》과 같은 解題書에서도 그렇게 言及하고 있다.²⁶⁾

2. 底 本

위와 같은 動機로 《節要》를 編纂하였다면, 그 編纂을 위하여 쓰여진 朱熹의 書札은 어떤 版本이었을까. 그 해답은, 앞에서도 引用한 바와 같이, 〈朱子書節要序〉에 나타나 있는 退溪의 글에서 찾을 수가 있겠다.

그 글에 따르면, 退溪는 中宗38年癸卯(1543)에 校書館에서 찍어서 나는 책을 보았다고 한다. 이때 본 책은

…夫子既沒 二王氏及余氏哀梓 夫子平日所著詩文之類爲一書 名之曰朱子大全 總若干卷…²⁷⁾

이라고 〈序〉에서 밝히고 있다. 이 글을 보면, 두 王氏와 余氏가 編纂한 책인것 같다.

朱子の 文集이나 大全은 中國에서 刊行한 版本이 여러가지 있는것 같다. 《朱子大全附錄》卷之十一의 〈諸編序跋〉만 보아도 알 수가 있듯이, 처음에는 王潛齋가 刊行하였고, 다음에는 劉叔忠이 《續集》을 刊行한것 같다. 이 《續集》을 刊行할 때에 王遂가 〈序〉를 썼으므로, 退溪는 王潛齋와 王遂를 合하여 “二王氏”라 부른것 같다. 그 뒤에 《別集》은 建通守로 있던 余師魯가 編纂하고, 그 아들인 同舍郎職에 있던 余謙一과 建安書院의 黃鏞에 의하여 咸淳元年乙丑(1265)에 刊行되었다.²⁸⁾

우리나라에서 轉印한 것은 《重刊大全》本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重刊本은 同寅太守로 있던 賀侯의 捐資로 天順 4年(1460)에 刊行된 책인데, 거기에는

·天順四年歲次庚辰春季望日建寧府推官吉水胡緝序

라하여 胡緝의 〈序〉가 있다. (圖1 參照) 이 重刊本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여왔는가는 알 수 없으나, 中宗10年(1515)의 《實錄》記事²⁹⁾에 “朱文公集”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이 때까지는 들여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中宗때에 《朱子大全》을 찍었던 것은 그 內賜記가 있는 책이 남아 있어 알 수가 있다. 內賜記가 있는 책은 二種이 알려져 있는데, 그중 한가지는 《經籍訪古志》卷第六

25) 影印本, 四, p.125下.

26) 金然, 海東文獻總錄 (서울·學文閣, 1969, 影印本), pp.781~782.

27) 日本影印本, 上, p.3.

28) 大全, 人, p.840.

29) 朝鮮王朝實錄 (서울:國史編纂委員會·探求堂, 1968~1970, 影印本), (以下「實錄」이라 略稱한다.), 15, p.118~119. 中宗 10年 乙亥 11月 4日 甲申·丙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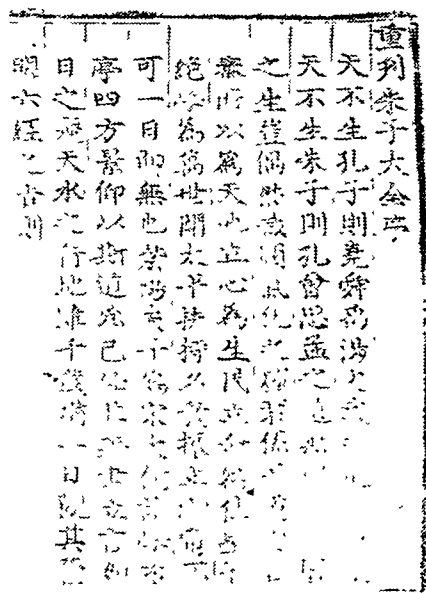


圖 1. 朱子大全 重刊序
第1張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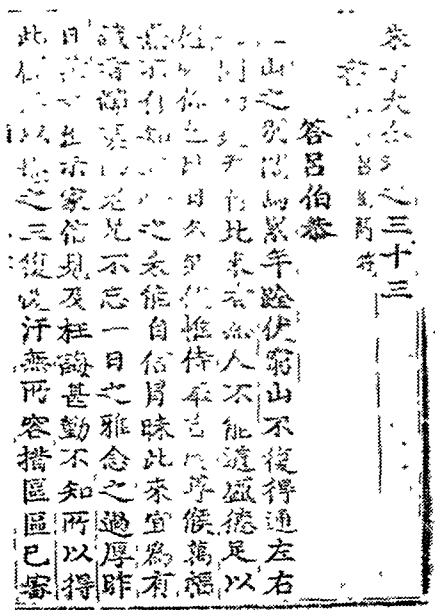


圖 2. 朱子大全 卷之三十三
第1張 앞면

에 乙亥字로 찍은 책에

嘉靖二十一年六月 日 內賜司諫院正旨閱起文 朱子大全一件.³⁰⁾

이라 있는 中宗37年(1542) 內賜本이다. 다른 한가지는 嘉靖二十二年 즉 中宗38年(1543)에 同副承旨인 權應挺에게 내린 日本蓬左文庫藏本이다.³¹⁾ 退溪가 編纂의 底本으로 삼은 책은, 그의 <節要序>에서 言及한 것과 같이, 이 後者의 內賜本과 같은 版本인 것 같다.

中宗38年 內賜本에는 前述한 天順4年의 <重刊序>가 있다. 이 <重刊序>가 있는 乙亥字 印本은 陶山書院에도 남아 있다.³²⁾ 이 陶山書院藏本이 退溪가 親히 본 책인지는 實査하지 難아 알 수 없으나, 모두 95책으로 되어 있다

같은 種類의 版本으로서 實査한 것은 高麗大學校藏本이다. 이 책은 元來 그 冊數가 100冊이 었던 모양으로, 크기는 세로가 31.8cm. 가로가 21.1cm. 이다.

30) 解題叢書 (東京: 廣谷圖書刊行會, 大正14), p. 111.

31) 李弘植, 韓國古文化論攷 (서울: 乙酉文化社, 1954), p. 192.

32) 道善서원중수지 ([서울]: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0), pp. 107~108.

第1冊의 卷首에는 〈重刊朱子大全序〉가 2張 있으니, 이를 끝에는

天順四年歲次庚辰季春望日建寧府推官吉水胡〈緝〉序

라고 되어 있다. 이어 〈朱子大全文集目錄上〉이라 하여 卷之一부터 卷之二十三까지의 目錄이 65張 있다. 第2冊도 目錄이니 〈朱子大全文集目錄下〉라 하여 卷之二十四부터 卷之一百까지의 目錄 78張이 있다.

第3冊부터 第92冊까지에는 本集의 卷之一부터 卷之一百이 들어 있고, 第93冊부터 第96冊까지에는 〈續集〉이, 第97冊 以後가 〈別集〉으로 되어 있다.

退溪가 《節要》를 編纂할 때에 쓴 底本의 書簡은, 卷之二十四부터 六十四 즉 第19冊부터 第59冊에 이르는 部分의 本集과, 第93冊부터 第96冊에 이르는 〈續集〉 全11卷, 그리고 第97冊부터 第99冊에 이르는 〈別集〉卷之一부터 卷之六까지의 部分에 들어 있다.

우선 參考로 이 乙亥字本 卷之一 第1張 前面의 版式을 보면,

四周双邊. 半匡: 23.8×16.5cm. 有界. 10行 18字 (或小字註双行) 版心: 上下白口. 上下內向細六瓣花紋魚尾 (單線. 單弧)

와 같다. (圖 2參照)

3. 批點과 註解

退溪가 《節要》를 편찬할 때에, 가장 처음으로 시작한 일은 批點을 붙이는 일이 아니었다 생각된다. 이는 月川 趙穆의 記錄을 引用한 《退溪先生言行錄》에

先生 初年 批點朱書節要. ³³⁾

라 한데서 알 수 있다. 批點과 同時에 註解도 하였으니, 이는 《朱子大全》의 書簡에는 보이지 않는 小字註가 《節要》에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退溪가 錦溪 黃俊良에게 보낸 書簡을 보면

…朱書註解… 其所註解 亦初不謂爲註解 只有考有得隨手劄錄 以備忘… 但其誤字疑字處 恐不可無註…³⁴⁾

라 있어, 註를 달 때에는 註解라기 보다는 備忘을 위하여 記錄한데 불과하고, 의심스러운 곳이 있을때 註가 없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 같다. 退溪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隨錄하였다하나 註解를 위하여 매우 힘쓴 것은 틀림 없으니, 이는 註解를 위하여 많은 參考書籍을 求한데서도 짐작이 간다. 退溪가 鄭惟一에게

33) 影印本, 四, p. 171下.

34) 上揭書, 一, p. 473下.

보낸 書簡들에 나타난 글에 註釋에 사용되는 書名이 여러가지 나타남³⁵⁾을 보아 알 수 있다.

4. 抄 寫

退溪는 批點을 하고 抄節할 곳을 表示한 다음에는, 이를 다시 베껴내도록 한것 같다. 抄節할 곳을 베껴내는 일은 글씨를 잘 쓰는 사람과 아들 그리고 조카들에게 맡긴 것은 <節要序>에서, 退溪가

·乃屬諸友之善書者 及子姪輩 分卷寫訖...³⁶⁾

이라 한데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베껴내는 일을 한 사람에 관한 일은 《退溪先生文集》이나 《陶山及門諸賢錄》 그리고 그의 弟子들의 傳記資料 속에서 자주 찾아 볼 수가 있다. 그 한 例로 明宗11年(1556)丙辰에 退溪가 趙穆과 琴蘭秀에게 보낸 書簡에서

·兩君也 晦庵書別集三冊 空冊四十餘幅 白紙一束 筆一柄 墨一笏 送呈 欲煩僉手揮寫此三冊所抄不夥 比諸君所寫之例 雖總作一卷 似不多幅數...³⁷⁾

라한 것을 보면, 抄寫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소용되는 종이·붓·먹등을 보내고, 또 베껴야할 책과 베길 곳을 편지로 써 보낸 것을 알 수가 있다.

위와 같이 《節要》를 베껴내는 일에 참가한 退溪의 弟子들은, 그 일을 매우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었던것 같다. 마찬가지로, 弟子의 後孫이나 門弟들도 그 일을 傳記資料 속에 가거이 記錄하고 있다. 梅軒 琴輔의 경우를 한 例로 든다면, 그의 實紀인 《梅軒先生年譜》“嘉靖三十五年丙辰(1556)” 36歲 條에

書朱子書節要 <時退溪先生編次朱書節要 命諸門人繕寫>³⁸⁾

라하여 베끼는 일에 참가한 것을 記錄하여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5. 對校와 批判

베끼는 일이 끝나자 베껴온 책은 한字 한字 다시 對校도 이루어진것 같다. 退溪가 鄭惟一에게 보낸 書簡에서

·朱子書 今幾寫畢 每一人寫來 隨將元本校正 病中頗費心力...³⁹⁾

이러한 것을 보면, 退溪는 病患중에 있으면서도 그 校正에 힘쓴 것을 알 수가 있다.

35) 上揭書, pp. 584~588.

36) 日本影印本, 上, p. 4.

37) 影印本, 一, pp. 550~551.

38) 梅軒先生年譜 (1913, 木板本), 第4張 앞面.

39) 影印本, 一, p. 576.

조카인 企菴 李完에게 쓴 편지가 引用된 《陶山及門諸賢錄》에

…寫來晦庵書… 因歲時多事 未及對校所云誤處想不難改也 但汝看此書何如…⁴⁰⁾

라 있는 것을 보면, 바쁜 가운데도 校正에 努力한 흔적이 보이며, 또 誤謬가 있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鶴峯 金誠一의 記錄을 引用한 《退溪先生言行錄》의 글에

先生家有朱子書寫本一帙… 其後 人多印出 每得新帙 必校讎點竄…⁴¹⁾

라 있는 것을 보면, 退溪는 새로운 印本이 나올 때마다 求하여서 對校한 것 같다. 이렇게 印本을 求하려고 노력할 때에 도와준 사람의 하나로 鄭惟一이 있는 것 같다. 退溪가 明宗13年戊午(1558)에 그에게 보낸 書簡에

…晦庵書 誤處所喻皆精管混亦知 鑄本有公私不改之異 但公本… 既不可得而據家藏私本·
今示考據正誤 公本欲去兩作之煩甚善 已就貼紙處悉用朱抹去之矣…⁴²⁾

라 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退溪가 《節要》의 抄寫가 끝난 다음에, 그 對校의 回數를 五·六次나 하였든 것은 위와 같은 鄭惟一에게 보낸 書簡에 이어서 쓴

…此書寫了 已經五六次讎校…⁴³⁾

라 한 것과, 錦溪 黃俊良에게 보낸 書簡에

朱書… 此書已經五六次校…⁴⁴⁾

라한데에서 짐작이 간다. 退溪의 校正은 《節要》만에 끄친 것이 아니며, 《朱子大全》의 全冊에까지 이른 것 같다. 洪啓禧가 쓴 〈朱子文集語類改刊凡例〉의 첫條에

玉山書院所藏 宣廟朝頒賜者 而間有頭註 書以李滉云云 似經文純公校勘⁴⁵⁾

이라 있어, 玉山書院에 退溪의 對校를 옮겨 쓴 一本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退溪가 이와 같이 어려운 過程을 지내면서 《節要》를 편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일에 대하여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다. 〈節要序〉에 보면

·或曰 聖經賢傳 誰非貫學 又今集註諸家說傳而人誦者 皆至教也 子獨拳拳於夫子之書札 抑何

40) 上揭書, 四, p. 395.

41) 上揭書, p. 171上.

42) 上揭書, 一, p. 588.

43) 上揭書, 同面

44) 上揭書, p. 472上.

45) 大全, 天, p. 2上.

所尚之偏 而不弘耶⁴⁶⁾

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退溪는 그 理由를 같은 <序>에서 뒤이어 說明하고 있다. 그 說明에서 退溪는

昔聖人之教 詩書禮樂皆在 而程朱稱述... 由是而旁通直上 則沂伊洛而達洙泗 ... 泯年薄... 悼前時之失學 慨餘韻之難理 然而區區發端 實有賴於此書...⁴⁷⁾

라 하여, 이書札에 의하여 聖人の 가르침에 가까이할 수 있는 단서를 얻었음을 밝히고 있다.

6. 本文의 完成

이상과 같은 경과로 이루어진 《節要》는 明宗11年(1556) 6월에 完成한것 같다. 退溪의 <年譜> 같은 달 記事에

編次朱子書節要成⁴⁸⁾

이라고 記錄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最初로 完成한 草稿本은 14卷 7冊으로 되어 있었든것 같다. 이는 退溪가 쓴 <節要序>에

...分卷寫訖 凡得十四卷 爲七冊...⁴⁹⁾

이라 한것과, 南彦經에게 보낸 退溪의 書簡에

...晦菴書 見成七冊...⁵⁰⁾

이라 쓴것에 의하여 알 수 있다. 趙穆의 記錄을 引用한 《退溪先生言行錄》의 글에

朱書節要定本註解 出於先生手錄 然其間亦有追改者 非可以一二言也⁵¹⁾

라 한 것을 보면, 《節要》의 定本을 註解한것은 退溪가 손수 쓴 것 같다. 그리고 이 定本을 이룰때까지는 여러 곳에 改訂의 붓을 댄것도 알 수 있다. 이 趙穆의 記錄에 이어 小字로 注한 것에

朱書節要目錄與元本所附錄 或有不合處⁵²⁾

46) 日本影印本, 上, p. 4.

47) 上揭書, 同面.

48) 影印本, 四, p. 125.

49) 日本影印本, 上, p. 4.

50) 影印本, 一, p. 362.

51) 上揭書, 四, p. 171.

52) 上揭書, 同面

라 있는 것을 보면, 刊行된 《節要》와 退溪의 元本附錄사이에는 맞지 않는 곳도 있었던 것 같다.

7. 弟子들의 轉寫와 修改의 繼續

退溪의 弟子들은 退溪의 《節要》編纂이 어느 정도 完成하자 이를 서로 베껴서 가진 것 같다. 退溪가 李叔樑에게 答書에

…晦菴書… 此書 後來多所修改 與公所傳本 亦多不同…⁵³⁾

이러한 것을 보면, 李叔樑이 가지고 있던 책이 나중에 고친 곳이 많으므로 같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짐작이 간다. 그리고 錦溪 黃俊良이 星州에서 刊行할 때에 底本으로 使用한 一本이, 現行하는 책의 卷次등과 差異가 있는 것도, 이렇게 退溪의 初編本을 베껴서 가지고 있었던 까닭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退溪는 初編本이 끝나고도 계속하여 그 修改에 힘쓴 것은 前述한 李叔樑에게 보낸 答書를 보아 알 수 있지만, 修改가 끝난 後에 이루어진 定本은 8冊本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는 錦溪가 星州에서 《晦菴書節要》를 적어낸 이후의 일이지만, 明宗21年丙寅(1566)에 竹川 朴光前이 退溪를 뵈우고 가져온 책이, 《陶山及門諸賢錄》에 보면

…丙寅冬 贊見于陶山 先生取朱子書節要 語之曰 立脚根基在此 將歸以節要初本八冊…⁵⁴⁾

이라 있어 初本이 8冊으로 되어 있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8. 序文의 完成

退溪는 《節要》의 編纂이 끝나자, 곧 그 〈序〉를 지은 것 같다. 退溪의 〈年譜〉에 따르면, 〈序〉를 쓴 때는 明宗11年丙辰(1556)의 十二月條에

序朱子書節要⁵⁵⁾

로 記錄되어 있어, 그해 12월에 쓴 것 같다. 그런데 이 〈序〉를 쓴 날자를 《退溪先生文集》⁵⁶⁾이나, 刊行되어 通行되는 여러 版本, 그리고 最近에 알려진 退溪 親筆의 〈序〉와 맞추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들 〈序〉에는 날자가 〈年譜〉보다 늦은 “戊午夏四月”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해는 곧 明宗13年(1558)이 된다.

退溪가 쓴 〈序〉는 《節要》의 本文과는 달리 따로 깊이 감추어 두고 公開하지 아니

53) 上揭書, 二, p. 54上.

54) 上揭書, 四, p. 344.

55) 上揭書, p. 125.

56) 上揭書, 二, pp. 348~350.

한 것 같다. 錦溪 黃俊良이 明宗16年(1561)에 《節要》를 찍으면서, 退溪의 序文을 받고자 편지를 올려도 그 答書에 다단

·朱書序文 曾已草得 而自覺其爲節要已犯不韙 重以自序尤爲僭冒 又其言太多剩出 故不欲示人⁵⁷⁾

이라하여, 朱書의 書簡을 節要한 것에 대한 위구심과 序文속에 여러 말이 많으므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싶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도 錦溪는 序文을 또 請한것 같으니, 退溪가 錦溪에게 보낸 答書에

·印書垂畢可賀 而序文不敢之意 前書盡之...⁵⁸⁾

라하여, 다시금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 序文이 公開된 것은 退溪가 돌아간 2年後인것 같다. 이는 退溪의 〈節要序〉 끝에 있는 高峯 奇大升이 쓴 〈識〉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識〉에서 高峯은

先生此序成於嘉靖戊午... 手自淨寫藏之巾笥 未嘗出以示人... 先生既沒 門下諸人 始得見其手稿... 隆慶六年九月日...⁵⁹⁾

이라고 적고 있는바, 이때가 곧 宣祖5年(1572) 9月이다.

退溪 親筆의 〈序〉로 알려진 〈晦菴書節要序〉는 最近에야 柳承國에 의하여 발표 되었다.⁶⁰⁾ 이 〈序〉는 《退尤二先生眞蹟》이라는 成帖의 一部를 이루고 있으며, 1972년에는 《儒敎學論叢》의 附錄으로 影印되어 刊行되었다.⁶¹⁾ 그리고 1975년에는 李東歡에 의하여 調査되어 文化財로서 報告되었다.⁶²⁾ 이상과 같은 資料에 의하여 退溪의 〈序〉를 보면 現行 版本과 약간의 異同이 있다. 그리고 高峯의 識文도 붙어 있지 않다.

9. 諸子目錄의 成立

《節要》의 序文이 明宗13年(1558)에 이루어진데 비하여, 《節要》各卷의 卷首에 있는 〈諸子目錄〉은 그 보다 늦게 이루어진것 같다.

退溪가 明宗22年丁卯(1567)에 柳雲龍에게 보낸 答書에 의하면,

·目錄... 今所草得纔居四分之三 未得者尚一分...⁶³⁾

57) 日本影印本, 下, p.107下, 影印本, 一, p.496下.

58) 影印本, 一, p.497上.

59) 奇大升, 高峯全集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6, 影印本), p.132에도 같은 글이 있다.

60) 柳承國, “退溪思想과 人格의 핵심: 親筆〈朱子書節要序〉草稿本の 發見과 그 意義”, 文學思想, 16, (1974.1), pp. 205~209.

61) 東靑岡泰植博士古稀紀念 儒敎學論叢 (서울: 同記念論叢發刊委員會, 1972)

62) 李東歡, “「退尤二先生眞蹟」調査報告書”, 國學資料, v.4 no. 3, (1975. 7), pp.13~15.

63) 影印本 三, p.103上.

이라 있고, 같은 書簡이 柳雲龍의 年譜인 《謙菴先生年譜》에도 要約되어 있는 것⁶⁴⁾으로 보아, 明宗22年初頃까지도 完成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退溪는 이 〈諸子目錄〉을 明宗21年(1568)에 定州에서 《節要》를 刊刻하면서, 柳雲龍이가 退溪에게 올린 上書에 따라 그 完成을 서둘른 것 같다. 《謙菴先生年譜》의 丙寅(1568)條에

又上書 稟定州重刊朱子書節要 修正及增註目錄事⁶⁵⁾

라 한데서 알 수 있다. 定州에서 刊行한 《節要》에 붙인, 高峯 奇大升이 쓴 〈定州刊朱子書節要跋〉의 날짜가 明宗22年(1569) 11月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退溪는 柳雲龍의 書簡을 받고서야 完成한 것을 알 수 있다.

10. 書名

退溪의 親筆 序文이라는 〈序〉의 題를 보면 “晦菴書節要”로 되어 있다. 그리고 星州에서 最初로 印出된 책을 보면, 그 卷首題나 版心題가 역시 “晦菴書節要”로 되어 있다. 또 《朱子書節要》의 卷末에 붙은 黃俊良의 〈跋〉에도 “星州印晦菴書節要跋”이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文獻들을 보자면, 退溪가 《節要》를 처음 편찬하였을 때에는 그 書名을 “晦菴書節要”라고 부른 것을 알 수 있다. 이 書名을 退溪가 《朱子書節要》로 바꾸고자 생각한 것은 明宗22年(1567)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退溪가 그 해에 柳仲淹에게 보낸 書簡에서

· 其題目 改晦菴曰朱子 書亦後來所欲更定者如此 已於家藏印本 逐卷皆改作此二字·⁶⁶⁾

라 쓴 것을 보면, 書名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家藏本의 書名까지 모두 고친 것을 알 수 있다.

Ⅳ. 朱子書節要의 內容과 引用書

現行하는 《節要》는 그 版本에 따라 內容이나 차례가 대체로 다르다. 여기에서는 日本刻版의 《李退溪全集》에 收錄되어 있는 影印本을 中心으로, 우선 그 物理的 차례를 더듬어 볼까 생각한다.

이 책에 따르면 《節要》의 차례는 대체로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1) 첫머리에 있는 退溪의 〈節要序〉와 그 序에 대한 高峰 奇大升의 識文.

64) 謙菴先生年譜 (純祖 3(1803), 木板本), 第5張 뒷면.

65) 上揭書, 同面.

66) 影印本, 三, p. 110上.

- (2) 《節要》의 〈總目〉
- (3) 各卷의 卷首에 있는 各卷의 〈諸子目錄〉
- (4) 各卷의 本文
- (5) 마지막에 있는 星州印 및 定州刊의 〈跋〉과
- (6) 〈附退溪李先生答李仲久書〉
- (7) 日本人의 〈跋〉과 刊記

위의 차례중 (5)와 (7)은 版本考에서 다루게 되므로 省略하고, 本章에서는 이를 차례에 따라 詳論하고자 한다.

1. 退溪의 序와 高峯의 識

退溪가 쓴 〈節要序〉가 언제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는 前節에서 論及한 바와 같다. 退溪가 쓴 이 〈序〉의 內容이야말로 〈節要〉를 編纂하게된 動機와 그 編纂過程을 알려 주고, 또 그의 朱子書에 대한 생각을 밝힌 글이라 말할 수가 있다.

이 〈序〉의 머리에는 序題가 있다. 序題는 版本에 따라 「晦菴書節要」或은 「朱子書節要」로 되어 있으나, 《退溪先生文集》⁶⁷⁾이나 이를 引用하거나 翻譯한 책에 收錄되어 있는 글에서는 모두가 「朱子書節要」로 統一되어 있다.

序文의 內容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朱熹의 亞聖으로서의 位置.
- ② 《朱子大全》의 編刊
- ③ 《朱子大全》을 退溪가 求讀한 경위와 讀書 그리고 그 感想
- ④ 書札部分에 대한 느낌
- ⑤ 節要하게된 理由
- ⑥ 節要의 編纂過程
- ⑦ 抄節한데 대한 罪感과 그에 대한 辯明
- ⑧ 朱子書단의 關心에 대하여 他人이 加한 批評에 대하여 書札을 읽어야 할 理由를 든 反論
- ⑨ 節要한 後의 退溪의 態度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序〉를 쓴 날자와 本·姓·名을

…嘉靖戊午夏四月日後學城眞李滉謹序」

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退溪의 〈序〉에 대하여 쓴 高峯 奇大升의 識文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가 있다

- ① 序文은 退溪가 58歲되던 明宗13年(558)에 지은 것

67) 上揭書, 二, pp. 348~350.

- ② 序文을 짓고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 ③ 刊行하여 配布하고자한 사람들이 書名을 「朱子書節要」라고 바꾼것
 - ④ 目錄과 註解는 刊行되었으나, 〈序〉는 끝내 내놓지 않으셨다는것
 - ⑤ 退溪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 手稿를 보고 刊行케하였다는 것
- 이상과 같은 사실을 쓴 다음에

..「隆慶六年九月日後學高峯奇大升謹識」

라고 識文을 쓴 날자인 宣祖5年(1572)의 날자를 밝히고 있다. 이 高峯의 識文은 高峯의 文集인 《高峯先生文集》卷第三에서도 〈朱子書節要序跋〉이라 題하여 收錄하고 있다.⁶⁵⁾

3. 節要的 總目

이상과 같은 退溪의 〈序〉와 奇高峯이 쓴 〈序〉의 識文이 끝나면 《節要》의 〈總目〉이 나온다. 이 〈總目〉은 《節要》의 卷之一부터 卷之二十까지의 篇題를 紹介한 것이다. 이 篇題는 卷之一부터 二까지가 “時事出處”이며, 卷之三이 “汪張問答” 그리고 卷之四가 “呂劉問答”이다. 앞의 卷之一부터 二까지의 篇題는 《朱子大全》의 卷之二十四부터 二十九까지의 篇題와 같지만, 뒤의 卷之三과 四의 篇題는 《朱子大全》의 篇題인 “汪張呂劉問答”을 二分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뒤이은 卷之五의 篇題인 “陸陳辨答”과 卷之六의 篇題인 “問答論事”, 그뒤의 卷之七의 篇題인 “問答” 그리고 卷之九부터 卷之十八까지의 篇題인 “知舊門人問答”은 《朱子大全》卷之三十六부터 六十四까지의 篇題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朱子大全續集》卷之一부터 卷之十一까지를 抄集한 《節要》卷之十九와 《朱子大全別集》卷之一부터 卷之六까지를 抄集한 《節要》卷之二十은 《朱子大全》의 卷首題를 그대로 옮겨서, 篇題로 한 것이다. 마지막 卷인 卷之二十의 篇題아래에 있는 副題는 《朱子大全別集》의 篇題 〈書〉아래에 있는 副題를 그대로 따고 있다.

4. 本文의 차례와 內容

《朱子書節要》의 本文은 《朱子大全》의 卷之二十四부터 卷之六十四까지의 〈書〉와, 《朱子大全續集》(以下 “續集”으로 略한다) 卷之一부터 卷之十一까지의 書, 그리고 《朱子大全別集》(以下 “別集”으로 略한다) 卷之一부터 卷之六까지의 〈書〉를 추린 것이다.

따라서 本文의 차례도 대체로 《朱子大全》과 그 《續集》·《別集》의 차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68) 奇大升, 前揭書, p. 132.

아래에서는 이와같은, 《節要》와 그 底本인 《朱子大全》의 차례와 內容을, 그 차례대로 對照하고, 또 退溪가 《朱子大全》의 書簡 原文을 어떻게 抄集하였으며, 註解하였고, 그리고 어떠한 書籍을 引用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생각한다.

이러한 究明을 위하여 《節要》는 前述한바와 같은 日本刻版의 《李退溪全集》에 있는 影印本을 對照의 原本으로 하였고, 《朱子大全》은 原本의 貴重性으로 인하여 借用할 수 없으므로, 英祖47年辛卯(1771)에 全羅監營에서 刊行한 木板本을 다시 影印한 曹龍承 發行本을 對照의 原本으로 삼았다. 이 完營刊本은 卷首題가 “朱子大全”으로 되어 있으나, 標題紙와 目錄의 題는 “朱子文集大全”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退溪의 學統을 이어받은 葛庵 李文逸의 아들 陶菴 李緯의 弟子중 第一人이라 할 수 있는 洪啓禧⁶⁹⁾가 心血을 기울여 校正 編集한 책인 까닭에 對照本으로 하였다. 《朱子大全》은 아래에서 “大全”으로 略하여 부른다.

우선 《節要》의 卷次와 各卷의 題·張數, 그리고 收錄된 諸子數를 《朱子大全》의 卷次, 〈書〉의 副題와 收錄 書簡數를 各卷別로 比較하여보면 아래 表1과 같다.

表 1. 차례와 內容 對照表

《朱子書節要》			收錄된 諸子數		除外된	《朱子大全》			
卷次	題	張數	計	重複	未	諸子數	卷次	副題	書簡數
卷之一	時事出處	目 2+38	18	1	0	45	卷之二十四~二十六	時事出處	84
卷之二	時事出處	目 2+38	25	0	6	38	卷之二十七~二十九	時事出處	94
卷之三	在張問答	目 1+40	2	2	0	—	卷之三十 ~三十二	問答	60
卷之四	呂劉問答	目 1+42	2	1	0	—	卷之三十三~三十五	問答	118
卷之五	陸陳辨答	目 1+24	4	1	0	—	卷之三十六	問答	24
卷之六	問答論事	目 2+27	17	2	2	1	卷之三十七	問答論事	45
卷之七	問答	目 3+52	29	5	5	2	卷之三十八~三十九	問答	117
卷之八	知舊門人問答	目 1+35	6	—	0	3	卷之四十 ~四十一	問答	64
卷之九	知舊門人問答	目 1+43	9	1	0	1	卷之四十二~四十三	問答	88
卷之十	知舊門人問答	目 2+37	15	1	1	6	卷之四十四~四十五	問答	104
卷之十一	知舊門人問答	目 2+49	17	3	1	3	卷之四十六~四十八	問答	101
卷之十二	知舊門人問答	目 2+34	21	—	2	3	卷之四十九~五十一	問答	143
卷之十三	知舊門人問答	目 1+39	15	1	3	3	卷之五十二~五十三	問答	99
卷之十四	知舊門人問答	目 3+45	43	1	9	7	卷之五十四~五十五	問答	137
卷之十五	知舊門人問答	目 2+24	14	—	1	2	卷之五十六~五十七	問答	70
卷之十六	知舊門人問答	目 4+47	49	2	6	12	卷之五十八~五十九	問答	134
卷之十七	知舊門人問答	目 3+43	40	—	5	8	卷之六十 ~六十二	問答	126
卷之十八	知舊門人問答	目 2+32	27	1	14	20	卷之六十三~六十四	問答	99
卷之十九	續集	目 2+48	29	13	2	28	續集卷之一~十一		59
卷之二十	別集	目 2+33	35	22	2	23	續集卷之一~六		183
合計		目39+770	422	63	53	210			1954

69) 洪啓禧가 陶菴 李緯의 弟子中 第一人者라는 것은, 尹炳泰 “[錦營印書體字]攷” 國회도시 관보, 第12卷 第7號, (1975. 11), pp. 31~32에서 言及하였다.

이 表에서 나온 統計의 結果에 따르면, 《朱子大全》과 그 《續集》·《別集》에 收錄된 書簡의 總數는 모두 1954通이나 된다. 退溪는 이렇게 約二千通이나 되는 書簡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批點하였으며, 註釋하였고, 또 抄寫하도록 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하여 이루어진 《節要》에는, 《大全》全體 書簡에 收錄된 總諸子數 475名(重複된 人員分을 1名으로 다시 셈한다면 모두 538名)중 53名分만을 除外한 322名分の 書簡을 收錄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그리고 그 張數는 《諸子目錄》모두 39張과 本文 모두 770張에 이른 것도 알 수가 있다. 本文 770張만을 對象으로 본다면, 約30萬字나 되는 字數를 抄集하여 《節要》를 編纂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數字는 2面×10行×20字인 경우를 들어 셈한 것이다).

4. 本文 抄集의 例

退溪가 이렇게 많은 量의 書簡을 抄集할 때에, 그 抄集의 基準은 〈節要序〉에서

就其尤關於學問 而切於受用者⁷⁰⁾

라한 것과 같이, 學問에 關係되고 受用에 간접한 것만을 基準으로한 것 같다. 이와 같은 基準으로 抄節한 것은 《節要》卷之一의 첫머리에 실은 「與 延平李先生書」의 경우만을 例로서 들어 보아도 알 수 있다.

圖2는 《大全》에 있는 「與 延平李先生書」의 部分만을 보인 것이다. 이 書簡 앞에도 「與鍾戶部論虧欠經總制錢書」 등 6通의 書簡이 《大全》에 실려 있으나, 《節要》에서는 取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같은 「與 延平李先生書」속에서도 또다시 抄節한 흔적이 남아 있다. 圖3의 《大全》의 書簡과 圖4의 《節要》의 書簡을 對照하여 보면 알 수 있다. 《大全》의 第3行 第12字부터 第7行 第8字 즉 「今日戴君·不可揜也」의 部分과 第9行中の 第3字부터 第11字사이의 「大略如中前書之意」部分, 第12行 第10字부터 第13行 第16字의 「此間亦未有·處可也」部分, 그리고 마지막 第14行 第10字부터 끝까지의 「九月二十六日拜狀不備」라 한 날자와 인사 部分 등은, 《節要》에서는 收錄하지 않고 있으나 글이 이어져서 記錄되어 있다.

한편 同一人에게 보낸 書簡인 경우에 《節要》에서는 이를 같은 卷속에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이름 아래에 모아두고 있다. 例로서, 《大全》卷之四十六에는 黃直卿 翰에게 보낸 書簡 7通이 各各「答黃直卿」이라는 題下에 나누어서 收錄되었는데 비하여⁷¹⁾ 《節要》卷之十一에서는 한 이름아래에 모아두고 있으며, 또 書簡數도 4通만 收錄하였고 그 內容도 抄節하였다.

70) 日本影印本, 上, pp.3下~4上.

71) 大全, 地, pp.82上~85下.

5. 註釋의 例

退溪는 위와 같이 學問에 요긴한 것만 抄節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註釋을 달았다. 이 註釋은 우선 書簡을 받은 사람에게 대하여 달고 있다. 例로서 《大全》卷之四十六 「答詹元善 體仁」의 경우,⁷²⁾ 여기에는 아무런 註가 없는데 비하여, 《節要》卷之十一에서 「答詹元善」아래에

體仁建之 武夷人…居番川 甜飫圖史 人不能窺其際

라고 무려 75字나 되는 註를 小字 双行으로 달고 있다.⁷³⁾

다음 註釋은 朱熹가 送信할 當時의 事情에 대하여도 달고 있다. 위의 圖 2와 3에 보이는 「與 延平李先生書」의 경우, 《大全》에는 아무런 註가 없는데 비하여, 《節要》에서는

隆興元年 先生被召 行至歙山 作此書也

라고 朱熹의 當時 事情을 註記하고 있는 경우가 그 例이다. 이 경우 書簡末에서는 受信者인 李延平에 대하여 註를 또 달고 있다.

退溪의 註釋은 書簡中에서 言及하는 人物이나 地名 그리고 여러가지 書名에 까지 이르고 있다. 人物의 경우는 《節要》卷之一의 「答張欽夫」란 書簡末⁷⁴⁾에 《大全》속의 “吳才老”와 “張子韶”에 대하여

吳才老 名成 張子韶 名九成⁷⁵⁾

이라 註記한 것이 그 例이며, 地名에 대하여는 《大全》의 「與曹晉叔書」속에 있는 “嶽巖”⁷⁶⁾이라는 말에 대하여, 《節要》卷之一의 같은 書簡末에

嶽巖 學於南院 在湘西 宋開寶中 郡守朱洞始創 中廢 至乾道初 守劉珙改修⁷⁷⁾

라 註釋을 단 것이 그 例이다.

書名에 대한 註釋으로서는 《大全》卷之三十七의 「與劉共父」속의 “印本”에 대하여⁷⁸⁾ 《節要》에서는 卷之六의 같은 書簡말에

印本即胡家本 乃胡家子弟所傳 印文定本也…⁷⁹⁾

72) 上揭書, p. 72下.

73) 日本影印本, 上, p. 213上.

74) 大全, 天, p. 440上.

75) 日本影印本, 上, p. 13下.

76) 大全, 天, p. 432.

77) 日本影印本, 上, p. 11上.

78) 大全, 天, p. 686上.

79) 日本影印本, 上, p. 112上.

라 註記한 경우이다.

이상과 같은 註釋以外에 退溪가 行한 註釋에는 여러가지 다른 文獻을 參考하고 引用하여 註한 것이 많다. 한 例로, 《大全》卷之三十七의 「答尤延之」라는 書簡속의 “虎食其外”라는 語句⁸⁰⁾에 대하여, 《節要》卷之六의 같은 書簡末尾에 《莊子》의 글을 引用하여

虎食其外 莊子 單 豹養其內 虎食其外⁸¹⁾

라 註한 것과, 같은 《大全》卷之三十七의 「答程可久」라는 書簡속의 “貳車”라는 語句⁸²⁾에 대하여 《翰墨全書》나 《白集》까지 參考하여 引用한, 《節要》卷之六의 같은 答書 글에 있는 註에

貳車 明道游瑯山詩序 聞貳車 晁公來游 云云·翰墨全書 通判爲俸車 俸副也 謂爲太守之副 又 白集謂之 貳藩⁸³⁾

이러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以上の 例와 같은 退溪의 註는, 《節要》의 內容을 理解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도록 한 退溪의 配廬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 同時에 이러한 註나 註에 引用된 參考文獻은 退溪의 博學한 見識과 博覽하였을 뿐만아니라 深奧한 識見조차 가지고 있었음을 證明하고도 남음이 있다.

6. 諸子目錄과 그 註

退溪가 《節要》를 編纂한 가운데에서 그 理解를 돕기위하여 이루어놓은 成果의 하나로는, 本文 各卷의 卷首에 붙인 〈諸子目錄〉을 들 수 있다. (圖 5參照) 《大全》에서는 이 〈諸子目錄〉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다만 收錄된 人物 즉 受信人의 姓과 字만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朱子大全目錄〉이 卷首에 있을 뿐이다.

《節要》의 〈諸子目錄〉은, 이 〈朱子大全目錄〉에 실린 것을 〈節要〉의 卷次에 맞추어 우선 모으고, 그리고 그 아래에 註를 단 것이다. 이 〈諸子目錄〉에 收錄한 總人員數는 前記한 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두가 422人이다. 그 중에서 退溪가 註記를 단 諸子は 모두 369人이며, 註를 달지못한 人員은 53人이다.

註를 단 人員中에서 같은 卷內에 重複되어 書簡이 나오는 人物에 대하여는 “見上”과 같이 註記하고 있고, 앞의 卷에서 나온 人物이 다시 나올 때에는 “見上一卷”등으로 註記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同一 人物의 姓·字 대신에 姓·官 등으로 記錄된 것

80) 大全, 天, p. 692下.

81) 日本影印本, 上, p. 115上.

82) 大全, 天, p. 699下.

83) 日本影印本, 上, p. 115下.

은 “一卷作○○”등으로 相互參照로 註記한 것도 있다. 이와 같이 重複으로 因하여 註를 달지 아니한 人員은 모두 63人이다.

退溪가 詳細하게 註를 단 人員은, 上記한 重複分과 未調分의 人員을 除外하면 306人이나 된다. 이러한 註中에서 “延平李先生”을 한 例로 들면,

名侗 字愿中 南劔州劔浦人 朱先生自謂 見延平後 爲學始就…無瑕· 詳見名臣言行錄⁸⁴⁾

라고, 名·字·鄉·朱熹와의 關係 그리고 마지막으로 參考文獻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諸子目録>의 註에 引用한 參考文獻들은 《節要》本文의 註釋에도 쓰인 것이 많으므로, 이를 卷之一의 <諸子目録>부터 引用된 차례로 그 書名과 引用한 回數를 보면 아래와 같다. (《節要》本文의 參考文獻은 《節要》의 附이 많아 略하였다.)

名臣言行錄	1
言行錄	12
宋史道學傳	5
鶴林玉露	2
一統志	23
實紀	95
翰墨全書	3
大全〔本文〕	17
宋史(史)	3
語類	20
史傳	4
台寓錄	9
語錄	1
養老書	1
宋邸集	3
淵源續錄	1
陳止齋集	1
聯珠詩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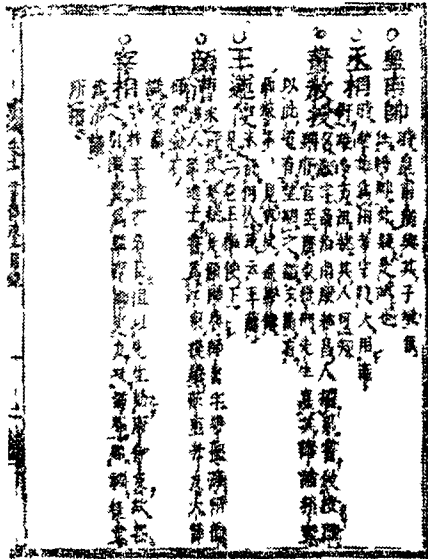


圖 5. 卷之一 諸子目録 第2張 앞면

위의 統計를 보면 引用한 參考文獻은 모두 18種이다. 이 중에서 《言行錄》은 《名臣言行錄》과, 《宋史》나 《史傳》은 《宋史道學傳》과, 같은 書名의 略稱으로 稱되므로 이들을 除外하여도 모두 15種이나 된다. 이들 引用文獻중에서 가장 자주 引用된 것은 《實紀》의 95回이며, 다음이 《一統志》·《語類》그리고 《大全》本文의 順序로 되어 있다. 이제 아래에서는 《節要》에 引用된 書籍中 몇가지를 略解하여 본다.

84) 上揭書, p.7.

7. 引用書 略解

가. 宋名臣言行錄

退溪가 본 책중 《宋名臣言行錄》에는 여러가지 版本이 있는 것 같다. 그 중의 하나는 燕山 8年(1502)에 淸道郡에서 南宋本을 覆刻한 《五朝名臣言行錄》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책은 卷首題가 “宋名臣言行錄”·“皇朝名臣言行錄”·또는 “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등으로 되어 있는 木板本이다. 退溪가 手澤한 零本이 誠菴古書博物館에 收藏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退溪의 印인 「眞城李滉惺惺法」라는 印記가 찍혀 있다.⁸⁵⁾ 이 手澤本의 版式은

四兩雙邊, 半匡: 21.8×15cm. 有界, 11行 21字. 版心: 上下異口, 上下內向黑魚尾.

로 되어 있다. 이 책을 編纂한 기은 朱熹와 李幼武이다.

다른 한 版本은 〈陶山書院藏書目錄〉에도 收錄되어 있는 《宋明臣言行錄》⁸⁶⁾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책 역시 朱熹와 李幼武가 纂集한 책으로, 卷에 따라 卷首題가 「皇朝名臣言行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모두 75卷 21冊인데, 그 중에서 前集 10卷 4冊과 後集 14卷 4冊은 朱熹가 編纂하였으며, 外集 17卷 5冊·別集上 13卷3冊·別集下 13卷3冊·續集 8卷2冊은 李幼武가 編纂한 것이다.

이 책은 주로 乙亥字로 적었는데, 間或 甲寅字와 乙亥字의 補字도 섞여 있으며, 특히 人名을 標出한 글자는 欽訓解大字를 써서 크고 돋보이게 하고 있다.⁸⁷⁾ (圖6 參照)이 책을 찍은 해는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中宗 31年(1536)의 《實錄》記事에 《名臣言行錄》을 찍는데 관한 이야기⁸⁸⁾가 나옴을 보아 그 때 적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두가지 版本의 內容은 宋의 名臣들의 傳記를 놓은 것인바, 그 중에서도 退溪가 주로 引用한 部分은 李幼武가 編纂한 外集·別集·續集의 部分인 것 같다.

退溪가 明宗 12年丁巳(1557)에 鄭惟一에게 보낸 書簡 가운데서

宋名臣事蹟眞可師法 自言行錄所載外 名公鉅賢纂輯成書… 反覆考攷 至於成秩之後 亦必參訂⁸⁹⁾

라한 것과, 그 이듬 해 戊午(1558)에

… 昨得宋參判台叟書 有道學名臣言行錄二冊 今行新得來云 考亭門人以下諸賢 想必具載·宋公矣看了 許欲寄示⁹⁰⁾

85) 韓國典籍綜合目錄 (서울, 國學資料保存會, 1975), 第4輯, p.129.

86) 註32 同書, p.138.

87) 尹炳泰, 朝鮮朝活字考: 大型活字 (서울: 연세대학교도서관학과, 1976), pp. 61~64.

88) 實錄, 17, p.655上右, 中宗 31年丙申(1536)5月12日 丙寅 「·傳于政院曰·名臣言行錄·等冊 印頒可也」

89) 影印本, 一, pp.184~185.

90) 上揭書, p.587上.

大明一統志卷之一
京師

古國劉之地在吳淞海右有大行也 於唐書所謂所
形勝甲於天下誠所謂天國之國也 遂金元時實於此
建都氣皆以春秋入中國不亦以帝形勢之勝至我
太宗文皇帝乃能濟於此及繼承大統建建為北京而遷
都焉子以統萬邦而撫四夷真足以帝形勢之勝而為
萬世不拔之藩矣自唐虞三代以來都會之盛未有過
焉者也

揚沂中 加國武志正

守 嶧縣人高宗賜名石中太師為醜泉
觀使孝宗朝都督江淮軍馬
李成叛時江東大帥呂頤浩駐軍左蠡以守其境
而江南招討使張俊方會諸將謀所以破賊皆
欲分道而進王時為右軍都統制官回兵分則
力弱又諸將位均不相下岳飛亦密為之定計
俊乃急趨南昌與賊夾江而營飛請自為將

圖 6. 宋朝名臣言行錄 別集 卷第六 第1張 앞面

大明一統志 卷之一
第1張 앞面

圖 7. 大明一統志 卷之一 第1張 앞面

御製大明一統志序
朕惟我
太祖高皇帝受
天明命混一天下薄海
版圖蓋自唐虞三代
以來一統之盛幾以
覆載之內古今已然

大明一統志

圖 8. 大明一統志 標題紙 吳 御製序 第1張 앞面

라한 것을 보면, 退溪가 中國에서 가져온 版本까지도 보고자한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 심부름은 鄭惟一이가 한 것 같다.

나. 一統志

이 《一統志》는 《大明一統志》의 略語로 보인다. 《大明一統志》는 成宗16年(1485) 3월에, 이 책의 形式에 따라 《東國輿地勝覽》을 讐校케한 일⁹¹⁾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알려진 것 같다. 이 책을 退溪가 求하여 읽은 것은 明宗13年 戊午(1558)에 鄭惟一에게 보낸 書簡에

…況宋史·一統志 既得之⁹²⁾

라한데서 알 수 있다. 退溪가 《節要》를 編纂할 때에 본《大明一統志》는 陶山書院에 있는 乙亥字印本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明宗 19年(1564) 6月の 內賜記가 있는바, 鄭惟一에게 보낸 書簡의 날짜보다 6年後의 일인 까닭이다. 따라서 退溪가 본 版本은 成宗16年(1486)頃에 《東國輿地勝覽》編纂時에 印出되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乙亥字本 이거나, 檜麓書院에도 그 零本이 남아 있었던 中國木板本⁹³⁾과 같은 책이 아니었나 생각된다.(圖 7~8參照)

이 《大明一統志》는 그 〈進表〉에 따르면, 天順5年(1461) 4月16日에 吏部尚書 兼 翰林院學士로 있는 李賢 등이 奉敎編纂한 책으로, 모두 90卷으로 되어 있는 책이다. 이 책은 明의 國土統一을 紀念하기 위하여, 當時의 各都·府등의 設置沿革 부터 人物까지 廣範圍하게 收錄한 地理志이다. 退溪는 이 책의 人物條에서 《節要》의 資料를 얻은 것 같다.

다. 實紀

〈諸子目錄〉에서 가장 많이 引用된 《實紀》는 《朱子實紀》가 아닌가 생각된다. 明宗 16年辛酉(1561)에 退溪가 李湛에게 보낸 答書에

…所寄朱子實紀一書得見 朱先生事迹與門人事迹 舊所慄惑者 因此豁然甚多…未及抄傳 姑稽還…⁹⁴⁾

이라 있고, 또 그 이듬 해인 壬戌(1562)에 보낸 答書에도

…朱子實紀 方有考檢未了事 蒙許且留…⁹⁵⁾

이라한 것을 보면, 李湛의 藏本을 退溪가 빌려 본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退溪 書簡

91) 註9 同書, p. 36.

92) 影印本, 一, p. 586下.

93) 李春熙 編, 李朝書院文庫目錄 (서울: 國會圖書館, 1969), p. 144.

94) 影印本, 一, p. 296下.

95) 上揭書, p. 297下.

이 해를 넘긴 것을 보면, 退溪가 《朱子實紀》를 매우 오랜동안 精讀한 흔적이 보인다. 李堯이 退溪에게 빌려준 《朱子實紀》가 어떤 版本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찍어낸 板本은 아닌것 같다. 왜냐하면 朱子の 年譜는 우리나라에서 일찍부터 刊行되었으나, 朱子の 實紀는 正德元年(1506)에 明의 戴銑이 編纂하고 正德 8年(1513)에 刊行한 책의 覆刻本이 남아 있어 알 수 있다.

이 覆刻本은 《攷事撮要》에 의하면, 그 板本이 光州에 있었으며,⁹⁶⁾ 그 刊行은 退溪가 돌아간 다음 해인 宣祖4年辛未(1571)에야 刊行되었기 때문이다. 이 刊行事實은 退溪의 弟子인 月川 趙穆의 舊藏本이 現在 誠菴古書博物館에 남아 있어 알 수 있으니, 그 月川 舊藏本에는 藏書記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隆慶辛未春 李平叔咸亨 以會葬 自湖南來溪上 其歸也 請印是書... 而識之 孟冬末 書...⁹⁷⁾

라는 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으니, 아마도 退溪의 弟子인 李咸亨이가 退溪가 愛讀·愛用하던 《朱子實紀》를 刊行하기에 이른것 같다. 이 光州刊本의 《朱子實紀》는 陶山書院이나 奎章閣에도 收藏되어 있어, 退溪가 보던 原本의 모습을 알려 주고 있다.

V. 朱子書節要의 版本과 그 存本

《節要》는 朱子の 書簡中에서 學問의 要緊한 部分을 抄節하였고, 또 退溪가 詳細한 註解를 베풀었을 뿐만아니라, 退溪의 生存時에는 敎材로도 使用되었으며, 退溪의 學統을 이어받은 後學들에 의하여도 續續 많이 읽혀졌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理由로 《節要》는 여러번 刊行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렇게 여러번 刊行된 節要의 版本과 그 存本을 알아보겠다.

1. 明宗16年(1561) 星州印 活字本

가. 刊行의 經緯

이 活字本은 退溪의 《節要》로서는 最初의 印本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책은 退溪의 弟子의 한사람인 錦溪 黃俊良에 의하여 星州에서 刊行되었다. 錦溪가 《節要》를 刊行하고자 생각한 것은, 退溪가 《節要》의 編纂을 끝낸 明宗11年丙辰(1556)의 이듬해인 明宗12年丁巳(1557)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退溪가 李叔樞에게 보낸 答書가운데

.. 晦菴書 仲舉與崔見叔 必欲印出 亦難終拒 求見其字樣 近印寄數紙 字體殊艱疎 仲舉云 欲

96) 魚叔樞 編, 攷事撮要 (서울: 南文閣, 1974), I. 41A

97) 註85 同書, p. 153左.

更求他字之可者 來春始印 未知其果能否也...⁹⁸⁾

이라 한데서, 錦溪와 崔應龍 두사람이 退溪의 《節要》를 刊行코자한 것을 알 수 있다. 退溪는 《節要》를 活字로 적어낸다는 連絡을 받았든 것 같다. 그때 退溪는 책을 적어 내는데는 글자가 精해야함을 主張하고 있으니, 같은 明宗12年丁巳(1557)에 錦溪에게 보낸 答書에

· 印書不爲 則已爲則 須得精字 如所示可也 ⁹⁹⁾

라고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리고 退溪는 活字를 求하였으면 반드시 적은 見樣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錦溪가 처음에 求한 活字의 字樣은 退溪의 마음에 들지않았든것 같다. 이는 前記한 바와 같은 李叔樞에게 보낸 答書¹⁰⁰⁾에도 言及되었지만, 같은 丁巳年(1557)에 錦溪에게 보낸 答書에도

· 印來字樣果未和 工今做一大段稀有事 芬此不贊而 字本不善如此 豈不可惜 所謂乙亥字者 若從來 如期則如示甚善... 朴重甫素有活字 頗精密 若未得於彼則未可以引於此耶...¹⁰¹⁾

라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錦溪가 처음 豫定으로는 乙亥字를 求하여서, 《節要》를 積고자한 것을 이 簡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 施行이 不可能하자 退溪는 朴承任이 가지고 있는 字樣이 좋은 活字를 使用하도록 권하고 있다.

錦溪가 星州에서 적어내고자한 《節要》는 退溪가 定本으로한 《節要》의 稿本은 아니 었든것 같다. 李叔樞에게 보낸 答書에도

· 古書 後來多所修改 不同印出 雖非所願 要見定本 ¹⁰²⁾

이라고 있지만, 錦溪에게 보낸 明宗13年戊午(1553)의 答書에도

· 朱書極荷留意 此書已經 五六次校 過每校 每得有誤 然今可謂畢校 若印工定來 這當依戒委 上 ¹⁰³⁾

라 하였고, 또 같은 대에 보낸 答書에서도

時舊書 · 中間有數處謬誤 願鄭子中指出得改爲幸 有缺誤 毋令手添補修正 勿視此爲 定本 而印改也 古人於書 雖既印而不佳修改 况承印乎 ¹⁰⁴⁾

98) 影印本, 二, p. 54上.
99) 上揭書, 一, p. 470上.
100) 上揭書, 二, p. 54上.
101) 上揭書, 一, p. 470下.
102) 上揭書, 二, p. 54.
102) 上揭書, 一, p. 472上.
104) 上揭書, 同面 下

라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退溪는 誤謬가 있으므로 적지말것을 여러번 錦溪에게 권한 일이 있다. 위의 <別紙>에서

…雖使印出其如 人不肯讀. .105)

라한것을 보면, 책을 적어내었다하여도 사람들이 읽지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退溪가 같은 해 錦溪에게 보낸 다른 答書에

·蓋却出非急· 混本抄此書 尙不及於印行 故其所註解 亦初不謂爲註解 只有考有得隨手 割錄以備忘耳· 不足以示人 .106)

이러한 것을 보면 退溪가 《節要》를 처음에는 刊行할 意圖下에서 編纂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또 註解는 備忘을 위한 것이므로 사람들에게 보이고싶지 않다고 하여 그 印出이 急하지 않다고 달리고 있다.

退溪는 이와 같은 理由로도 그 印出刊行을 달리고 있지만, 또 다른 理由로는 活字에 의한 刊行과 그 字行의 變動에 있는 것 같다. 退溪가 錦溪에게 보낸 書簡에

…晦菴書 字行式樣同封寄呈 此及鄭及弟子中所均 自以不滿 堅耐不用者也 ·大抵活字例 皆字疎 今欲字行皆依此則 冊太大 減之則卷增多 恐皆有礙 .107)

라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退溪는 단일 《節要》가 刊行된다면 誠意있는 印出本이 나올 것을 기대하였던것 같다. 이는 退溪가 錦溪에게

·木活字甚不易如此 但誠欲印出其本 更欲一過目 恐更有商量處故也. .108)

라고 써보면 書簡에 의하여 알 수 있다. 退溪는 《節要》가 印出되었다면, 곧 보고 틀린 곳이 있으면 指摘하여 고치고자 생각한것 같다. 다른 答書에서

·混 音不待粧橫 只以印本一件 逐卷送來 并其元本 容得勘過誤字 貼標還上. .109)

라한데 대하여, 錦溪는 적은 책과 함께 自己가 지은 跋文을 退溪에게 보내면서 《節要》의 序文을 지어줄 것을 부탁한것 같다. 이에 대하여 退溪는 答書에서

·但弁首之文· 只以抄節先賢之文 已極僭踰 不欲重負罪… 所以抄節印行之意 於卷末使覽者知 · 不可示人傳後 .110)

라하여 序文을 달이는 것을 사양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答書에서

105) 上揭書, p. 473上.

106) 上揭書, 同面 下.

107) 上揭書, 三, p. 72上.

108) 上揭書, 一, p. 493上.

109) 上揭書, 三, p. 73下.

110) 上揭書, 一, pp. 494~495上.

…朱書印已過半 何其始遲 · 其界行之斜 未可一正之乎 夾註之詳 固未可盡印得 印貼籤處亦足矣 索寄二卷 則不謂印功之速如此 ..¹¹¹⁾

라하여 印本の 界行이 비뚤어진것을 바르게하고 또 적지 못한 夾註의 處理를 말하고 있다. 또

·所印朱書 卷帙許多 · 愚意 寧遲數月 必須得士人 曉事忠實者 再三校過 十分精補 使無大疎漏處 · 取其一件 并元本送來于此 謹校什標回納 因以並改諸件何¹¹²⁾

라하여, 校正人을 늘려서 校正에 萬全을 期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錦溪가 退溪에게 序文을 여러번 請하였으나, 退溪는 번번히 이를 사양하였다. 사양한 첫째 理由는 앞서도 거절한 바와 같이 先賢의 글을 함부로 抄節한데 있으며, 둘째 理由는 錦溪의 跋文단으로도 充分한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다. 錦溪에게 보낸 明宗16年辛酉(1561)의 두번 答書中에서

…朱書序文· 自覺其爲節要已犯不韙 · 今見跋語甚善 且好得此在書尾 既可以不掩 愧妄作之罪 ..¹¹³⁾

라하였고, 또

…序文不敢之意 前書盡之 前承草示跋文甚佳...¹¹⁴⁾

라한데서 알 수 있다. 《節要》의 印本이 誤謬가 많았고, 또 活字의 모양이나 界行의 按配가 退溪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그래도 退溪는 《節要》의 刊行을 기뻐하고 있다. 錦溪에게 보낸 같은 答書에서

印書垂畢可賀¹¹⁵⁾

라 하였고, 이어서 보낸 書簡에서

後節乃錦溪之命也 愧亦姑賞其志· ..¹¹⁶⁾

라하여, 錦溪의 뜻이 佳賞함을 致賀하고 있다. 그리고는

·近孝節要誤處別紙寫去命改爲· 願雖已粧績 勿遽分布則 續續可校 報改正也· ..¹¹⁷⁾

라하여, 印出한 책을 繼續校正하여 들린 곳을 알려라고 말하고 있다.

111) 上揭書, p.495上·下.

112) 上揭書, p.496上.

113) 上揭書, 同面 下.

114) 上揭書, 497上.

115) 上揭書, 同面

116) 上揭書, 四, p.197下.

117) 上揭書, 一, p.498上.

나. 存本에 대하여

星州에서 錦溪 黃俊良에 의하여 印出된 木活字本으로서 分明한 책은 여러 곳에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金某씨 藏本은 15卷 8冊의 完本이며, 零本으로는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晚松文庫本이 있다. 그러나 이 晚松文庫本은 整理中에 있으므로 實査하지 못하였다.

이제 實査한 金某씨 藏本에 의하여 우선 그 形態的인 面을 살펴보기로 하면, 이 책의 料紙는 楮紙이며, 그 크기는 세로가 31.7cm, 가로 즉 幅이 21.5cm 이다. 이 책을 찍은 活字는 字體가 不整한 木活字이며, 대체로 字經이 1cm 內外의 行書體와 筆書體가 混用되어 있는 活字이다. 이 책 卷之一 第1張 앞면의 版式을 보면

四周單邊. 半匡: 23.9×17.6cm. 有界. 12行 21字, 註小字 單行(或双行) 版心: 上白口. 上下 下向細不整四瓣花紋魚尾, 「晦菴書節要卷十八」 下魚尾下 次「一」

과 같다.(圖 9參照)

이 活字本의 차례를 川谷書院本을 覆刻한 日本에서 刊行한 影印本과 對照하여 보면 若干의 差異가 있다. 우선 星州印本을 冊次와 卷次 張數 그리고 담는 內容의 辻머리를 보면 아래와 같다.

第1冊	卷之一	51張	與延平李先生書
第2冊	卷之二	39張	答汪尚書
	卷之三	34張	答呂伯公
第3冊	卷之四	41張	答陳同甫
	卷之五	35張	與曾炎久
第4冊	卷之六	43張	答何叔京
	卷之七	33張	答李伯諱
第5冊	卷之八	30張	答廖子晦
	卷之九	44張	答呂子約
第6冊	卷之十	38張	答葛正淳
	卷之十一	49張	答陳柳之
第7冊	卷之十二	41張	答楊仲思
	卷之十三	50張	答汪易直
第8冊	卷之十四	40張	答何倅
	卷之十五	33張	答馮奇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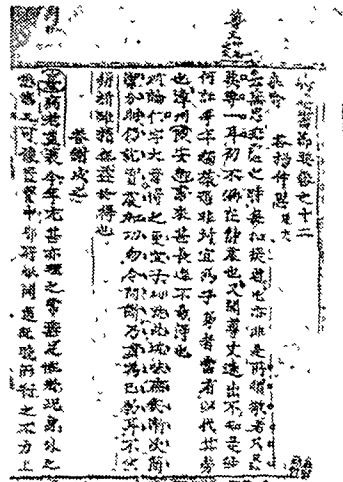


圖 9. 晦菴書節要 卷之十二 第1張 앞면

以上과 같은 卷次의 매김을 보아 星州 印本이 印出된 다음에 退溪에 의하여 卷次의 매김에 있어 若干의 變動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러한 變動 즉 改編의 順序를 따른 것이 川谷書院 刊本 및 그 以後의 刊本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책의 卷末에는 木板으로된 黃俊良의 跋文이 있다. 이 跋文의 版心에는 版心題

가 있으며, 張次의 表示도 《晦菴書節要》의 卷之十五에 이어져서 第34張부터 第37張에 걸쳐 있다. 參考로 木板으로된 部分의 版式을 보면

四周双邊. 半匡: 23.3×18.3cm. 有界. 8行 14字.

로 되어 있다. 이 跋文의 筆蹟은 錦溪의 筆蹟을 그대로 模刻한것 같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跋題도 없이 바로 跋文이 시작하고 있다. (圖 10參照

이 跋文을 보면, 萬曆乙亥(1575, 宣祖8年)에 川谷書院에서 刊行한 책을 底本으로 轉刻한, 日本版의 《李退溪全集》收錄 《朱子書節要》에 있는 〈星州印晦菴書節要跋〉과는 內容上에 若干의 差異가 있다. 이제 이 두가지 跋文을 서로 比較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差異가 있다.¹¹⁸⁾

- (星州本) 嘗讀心經 見程篁墩附註所載
- (日本本) 嘗讀朱門講學 往復之書 或見
- (星) 朱門問答之書 皆言近…及見 吳訥
- (日) 於諸書者率皆 皆言近…及見 吳思
- (星) 齋所選…然則退溪節要之功 真有
- (日) 菴所選·然而退溪(여기부터 26字
- (星) 益於後學 而亦豈非天啓其衷 以闡
- (日) 가 없음.)
- (星) 文明之化也耶 公猶以取舍之
- (日) 公猶以取舍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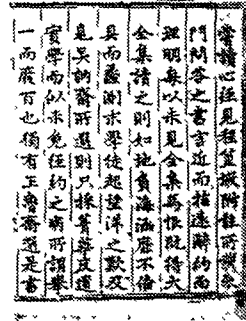


圖 10. 晦菴書節要跋 第1張 앞面.

이렇게 跋文의 첫머리부터 若干의 差異가 있고 또 中間에도 若干의 差異가 있는 것은, 이 星州印本이 나온 다음에 退溪가 그 跋文을 보고 若干의 修正을 加한 것을 刊行한 까닭이 아닌가 생각된다. 退溪가 黃仲舉에게 보낸 答書에

…前承 草示跋文甚佳 其間有一二未安處 妄以私見略加增損…¹¹⁹⁾

라고 있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 錦溪의 跋文을 읽어보면, 退溪가 《節要》를 編纂한 動機를 밝히고 있고, 또 錦溪가 《晦菴書節要》를 刊行하게된 經緯를 밝히고 있다. 이제 《錦溪先生文集》卷之四에 收錄어 있는 〈晦菴書節要跋〉이라는 글에서, 그 重要한 줄거리를 추려보면

…退溪李先生(滉)喜得全書…夫子平日精思 力踐之功…尤在於書疏 非他文比 乃手抄 其最關於學問 而切於日用者 約繁就簡 略加訂解 凡所取才三之一 …俊良輒不自揆 深懼巾衍一本

118) 黃俊良, 錦溪先生文集(丹陽:英祖31 (1755)跋), 卷之四, 第26張 뒷面~第28張 뒷面에 있는 글은 川谷書院本의 錦溪跋을 取錄하였으므로 이 內容과는 다르다.

119) 影印本, 一, p. 497上.

易致漫威 借活字於臨臯書院 又得洪使相疊助錢一半 僅得卒事 一邑之力 恨未廣也 如有同好者 表出是集 或繡梓 或印字 俾之家傳人誦… 嘉靖辛酉五月甲辰 箕城黃俊良謹跋¹²⁰⁾

과 같다. 이 跋文의 머리에 있는 退溪의 《節要》編輯에 관한 이야기는 前述한 “成立”條의 內容과 大同小異함으로 略하거니와, 그 밖의 刊行에 관한 事實에 대하여는 약간의 究明이 必要할것 같다.

跋文에 따르면, 《晦菴書節要》를 찍은 木活字는 臨臯書院의 活字를 빌려서 쓴것 같다. 《韓國故事大典》에 의하면, 臨臯書院은 永川에 있으며, 明宗10年乙卯(1555)에 創建됨과 同時에 賜額되었고, 圃隱 鄭夢周와 皇甫仁을 享祀하고 있는 書院이다.¹²¹⁾ 이 書院에서 어떤 책을 적었는지 알 수 없으나, 明宗10年(1555)부터 《晦菴書節要》를 찍기 시작한 明宗15年(1560)頃 사이에 木活字를 만든 것을 짐작하게 한다. 錦溪는 이 永川 臨臯書院에 活字가 있는 것을 알고 빌려와서 책을 찍은 것 같다.

같은 跋文의 날짜에 따르면, 《節要》를 完印한 것은 明宗16年辛酉(1561) 5月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때 錦溪는 星州牧使로 있었으며, 當時 慶尚監司인 洪曇의 金融上 도움으로 《節要》의 印出이 可能하였던것 같다. 退溪가 쓴 錦溪의 行狀인 〈星州牧使黃公行狀〉을 보면

·庚申秋 拜星州牧使 越四年癸亥春 得疾辭…¹²²⁾

라 있고, 또 《錦溪先生文集》에도 같은 말이 있는 것¹²³⁾으로 보아, 錦溪가 星州牧使로 赴任한 것은 明宗15年(1560)이다. 錦溪는 赴任하자 丹陽郡守時에 計劃하려다 이루지 못한 《節要》刊行의 일을 곧 始作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같이 刊行된 星州刊 木活字 印本은 앞에서 言及한 두가지 藏本 以外에도 陶山書院에 한벌 더 있지않나 생각된다. 〈陶山書院藏書目錄〉을 보면, 이 책의 版式과 卷數가 같은 一本이 所藏되어 있다.¹²⁴⁾ 이 책은 實査하지 못하여, 잘 알 수는 없으나, 이 活字本과 같은 版本이거나 다음에 言及하는 海州나 平壤 印本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 刊行者 錦溪에 대하여

星州에서 印出한 《晦菴書節要》에 대하여 畧에 있어, 마지막으로 言及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印出을 始終一貫 完成하도록 努力한 錦溪 黃俊良의 事跡이다.

錦溪는 退溪의 高弟子인 까닭에 그의 簡單한 事跡은 《陶山及門諸賢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¹²⁵⁾ 그러나 錦溪의 行跡을 가장 자세하게 알 수 있게 要略한 것은 그

120) 黃俊良, 上揭書, 同面.

121) 金舜東, 韓國故事大典, 修正再版(大田: 回想社, 1969), p. 566上.

122) 影印本, 二, pp. 468~471.

123) 黃俊良, 上揭書, 卷之九, 第1張부터.

124) 註32 同書, p. 122.

125) 影印本, 四, pp. 325下~327上.

의 行狀이라 하겠다. 이 行狀은 그의 文集인 《錦溪先生文集》外集卷之九의 附錄에도 收錄되어 있거니와,¹²⁶⁾ 退溪가 이 行狀을 지었던 까닭에 《退溪先生文集》에도 들어 있다.¹²⁷⁾ 退溪는 行狀의 題를 〈星州牧使黃公行狀〉이라 붙이고, 그의 事跡을 적고 있다. 그 끝에 따르면, 錦溪 黃俊良은 字가 仲舉이며, 本貫이 平海이고, 豊基에서 살았고, 父는 이름이 輝 母는 昌原黃氏로서 教授로 있던 黃漢弼의 딸이었다. 錦溪가 난것은 中宗12年丁丑(1517) 7月이며, 中宗32年丁酉(1537)에 司馬試에 合格하였고, 3年後인 中宗35年庚子(1540)에는 文科에 乙科 第2人으로 合格하였다. 知成均館學諭로 시작하여 明宗18年癸亥(1563)에 星州牧使를 그만들 때까지 官路에 몸을 담았다. 明宗18年봄에 《晦菴書節要》의 印役으로 因하여서인지 病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던 途中 3月 11日에 나이 47歲로 醴泉境에서 死亡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退溪는 哀痛한 나머지 祭文을 지어 그의 죽음을 슬퍼 하였다. 이 祭文은 退溪의 《文集》에도 收錄되어 있다.¹²⁸⁾

錦溪가 退溪의 學風을 影響받은 까닭에서인지, 그가 外任의 여러 守丞을 지날 때마다. 學校를 세우거나 짓고 教育을 振興한 것은 特記할만하다. 新寧에서는 白鶴書院을 지었고, 丹陽에서는 鄉校를 옮겼고, 星州에서는 迎鳳書院(後의 川谷書院)을 復興하여 敎官을 두어 教育을 시키게하는 한편 孔谷書堂을 세웠으며, 八莒縣에서는 鹿峯精舍를 세운것 등이 그런 事實을 立證한다. 그가 星州에서 迎鳳書院을 復興하면서 《迎鳳書院志》를 編纂하여 木活字로 印出하면서 退溪에게 그 〈記〉를 짓게한 일은 別稿로 論하기에 여기에서는 省略한다. 退溪는 錦溪가 돌아간 다음 그의 아우의 請으로 그의 文集인 《錦溪先生文集》도 編纂한바 있다. 이 일 역시 別稿로 論하기로 한다.

2. 明宗19年(1564)頃 海州印 活字本

가. 刊行의 經緯

明宗19年(1564)頃에 海州에서 《節要》를 活字로 印行한 것은 高峯 奇大升이 쓴 〈定州刊朱子書節要跋〉에

· 今定州牧柳公仲郢 持西海節 又印之…皆用活字 印訖旋毀.¹²⁹⁾

라 있어, 黃海道의 觀察使로 있던 柳仲郢에 의하여 活字로 印出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事實은 柳仲郢의 아들 柳雲龍의 年譜인 《謙菴先生年譜》에도

· 諫政公 以海州活印節要 印訖旋毀.¹³⁰⁾

라 있고, 또 柳仲郢가 明宗22年丁卯(1567) 9月에 쓴 《朱子書節要》의 識文에

126) 黃俊良, 上揭書, 同面.

127) 影印本, 二, pp. 468下 ~ 471下.

128) 上揭書, pp. 406~407.

129) 日本影印本, 上, p. 417.

130) 註64 同書, 卷之一, 第5版 뒷면.

…余叨按西道 又印 於海州 而活本旋毀…¹³¹⁾

라고 있어 確認할 수 있다. 明宗19年甲子(1564) 7月の 《實錄》記事에

壬寅 以 柳仲郢 爲黃海道觀察使¹³²⁾

라고 記錄되어 있는 것을 보면, 柳仲郢가 黃海道觀察使로 任命된 것은 그 해 7月 2日 인것 같다. 그는 이듬 해인 明宗20年乙丑(1565)에는 僉知中樞府事가 되어 李之信과 交代한것 같으니, 그가 黃海道觀察使로 在任한것은 約1年間이었든것 같다.¹³³⁾ 이 짧은 期間에 活字로 《節要》를 찍어내었던 것이다.

柳仲郢이가 海州에서 《節要》를 찍을 때에, 그 實務는 그의 아우인 巴山 柳仲淹과 두아들이 擔當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아들 柳雲龍의 年譜인 《謙菴先生年譜》의 明宗 19年甲子(1564)條에 보면,

冬觀議政公于海州·與巴山公·文忠公 讀睿神光寺·¹³⁴⁾

라 있어 이를 짐작하게 한다. 《節要》를 찍을 때에 使用한 活字가 어떤 活字인지, 그 印出本이 알려지지않아 알 수 없으나, 찍어낸 책은 매우 疎略하였든것 같다. 이는 明宗21年丙寅(1566)에 定州에서 또다시 《節要》를 刊行한다는 書簡을 받고 낸것으로 믿 어지는 柳仲郢에게 보낸 退溪의 答書에

晦菴書… 經印於星 已爲疎率 再印於海 仍從前疎…¹³⁵⁾

라한것과, 또 柳仲郢의 아들인 柳雲龍에게 보낸 같은 해의 答書에도

··星海二本 往往分註入刊 但多疎略而 又未盡收…¹³⁶⁾

라 있어, 海州印本은 星州印本과 같이 疎略하였고 또 註가 제대로 收錄되지 않았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海州에서 찍어낸 《節要》는 退溪에게 곧 보내어진것 같다. 退溪는 받은 책을 一一히 다시 讎校한것 같다. 이 事實은 그의 弟子 趙穆에게 보낸 書簡에 나타나고 있다. 이 書簡들은 모두가 明宗21年丙寅(1566)에 쓰여진 것이니, 趙穆에게 보낸 書簡에서는

·海州印本朱書 曾得一件 近方校勘 誤字甚多 若如此 轉轉承訛 襲謬 終不成書 可憫可恨·¹³⁷⁾

131) 尹炳泰, 韓國古書年表資料 (서울: 國史館, 1969), p. 21.

132) 實錄, 20, pp. 699上右 ~703. 『明宗19年甲子7月2日壬寅~9月1日庚子.』

133) 柳成龍, 西厓集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58), p. 344.

134) 註 64 同書, 卷之一, 第4張 뒷面.

135) 影印本, 一, p. 383上·下.

136) 上揭書, 二, p. 210下.

137) 上揭書, 一, p. 568上.

이라하였고, 또 柳雲龍에게 보낸 答書에서는

…海州本初卷 近方尋得畢校 多有闕誤 已皆修改¹³⁸⁾

라 하였으며, 琴蘭秀에게 보낸 答書에서는

…海州本朱書 近方繼校 至第七冊 誤錯甚多 隨手改正…¹³⁹⁾

이라 하였고, 巴山 柳仲淹에게 보낸 書簡에서도 위와 같은 內容으로

· 海州印本 近方校繼 到第七冊 誤錯殊多 皆隨手修改 其修改處 皆有標識 庶使多有此本者 尋標改正可易施手也…¹⁴⁰⁾

라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두사람에게 보낸 書簡을 보면 校繼한 곳에 일일이 標를 하고,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찾아 고치게한 것을 알 수 있다.

以上과 같은 經過로 平壤에서 刊行된 책은 그 印本이 알려지지 않아 그 正確한 形態와 內容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印本은 앞에 引用한 書簡들로 미루어 보아 星州에서 印出한 木活字本을 轉印한 것으로 짐작되며, 또 그 冊數는 7冊以上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나. 刊行者 立巖에 대하여

海州에서 印出한 活字本을 言及함에 있어 그 印出을 主管한 사람인 立巖 柳仲郢에 대하여도 잠깐 言及하여야만 될 것 같다. 그의 아들인 西厓 柳成龍의 文集《西厓先生文集》에 있는 그의 行狀인 〈先考黃海道觀察使府君行狀〉¹⁴¹⁾에 따르면, 그는 字가 彥遇이고 本貫은 豐山 이다. 中宗10年乙亥(1515) 正月12일에 태어났으며, 中宗35年庚子(1540)에 文科에 合格하였다. 成均館 權知學諭로 任命받은 以後 여러 內外的 官職을 지나고, 宣祖6年癸酉(1573) 7月 13일에 돌아간 분이다.

그는 謙菴 柳雲龍과 西厓 柳成龍의 父親이며, 두 아들을 모다 退溪의 門下生으로 보낼만큼 退溪와 親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그는 退溪의 編作인 《節要》를 海州에서 印出하였으며, 또 定州牧使로 있을 때에도 後述하는 바와 같이 《節要》를 또 刊行하였던 것이다.

3. 明宗21年(1566)頃 平壤印 活字本

平壤에서 活字로 《節要》를 印出한 것은, 高峯 奇大升이 쓴 〈定州刊朱子書節要跋〉

138) 上揭書, 二, p. 210下.

139) 上揭書, p. 243上.

140) 上揭書, p. 248上.

141) 註133 同書, pp. 342上~347上.

에서 海州印本과 함께 言及하면서

…今定州牧柳公仲郢 持西海節 又印之 其後又有印之于平壤者 第皆用活字 印訖旋毀…¹⁴²⁾

라 한데서도 알 수 있거니와, 退溪가 柳仲淹에게 보낸 明宗22年丁卯(1566)의 答書에서

· 於海州平壤印時 皆用活字旋壞…¹⁴³⁾

라는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平壤活字 印本을 적어낸 날자는 위에 引用한 두가지 글로서는 正確하게 알아낼 수는 없다. 다만 짐작한다면, 앞의 高峯의 글에서는 海州에서 적어낸 以後의 일로 되어 있고, 또 退溪의 書簡에도 海州 다음에 平壤을 든 것으로 보아, 海州에서 적어낸 다음에 平壤에서 적어낸 것을 알 수 있다.

海州에서 活字로 책을 적은 것이 明宗19年(1564)頃이라면, 平壤에서 적어낸 것은 그 보다도 늦은 해이었을 것이니, 아마도 明宗20年(1565)부터 退溪가 柳仲淹에게 答書를 보낸 明宗22年(1567) 사이가 생각된다. 만일 明宗20年이라고 한다면 그 때의 平安監司는 鄭宗榮인것 같다. 《平壤志》에 따르면

鄭宗榮 癸亥兼府尹 力於興學¹⁴⁴⁾

이라 있어, 鄭宗榮이 明宗18年(1563)에 부임하여 매우 學問을 일으킨것 같다. 그러나 그가 《節要》를 刊行하지는 아니한 것 같으니, 같은 《平壤志》의 뒷글에 이어져 있는

金德龍 丙寅兼府尹 儉朴自守¹⁴⁵⁾

라한 글에서, 明宗21年(1566)丙寅에 赴任한 金德龍이 《節要》를 印出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金德龍에 대하여는 《陶山及門諸賢錄》에 있는 글에

金德龍 字雲甫 號靜齋 安東人 居京 遊先生門 登第…¹⁴⁶⁾

라 있어, 退溪의 弟子인 그가 平安道觀察使兼 平壤府尹으로 赴任하자마자 그의 스승인 退溪의 編著를 刊行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韓國學大百科事典》에 있는 〈朝鮮王朝歷代相臣·監司一覽〉에 따르면 그는 明宗21年부터 22년까지 사이에 平安監司에 在任하고 있었든것 같다.¹⁴⁷⁾ 그가 赴任한 第2年인 明宗22年丁卯(1567)에 退溪가 柳仲淹에

142) 日本影印本, 上, p. 417.

143) 影印本, 二, p. 248上.

144) 尹斗壽, 平壤志 (서울: 平南民報社, 1964. 影印本), 三, 第23張 前面.

145) 上揭書, 同面.

146) 影印本, 四, p. 329上.

147) 韓國學大百科事典 (서울: 乙酉文化社, 1972), 3, p. 91.

게 보낸 答書에서 이미 引用한 것으로보아, 이미 그 前年인 明宗21年丙寅(1566) 즉 金德龍이 赴任한 해에 곧 活字로 《節要》를 찍어내지않았나 생각된다.

이때에 찍어낸 平壤活字印本은 아직 發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떤 活字로 찍었는가는 알 수 없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柳仲淹에게 보낸 明宗22年丁卯(1567)의 前記 答書에서 錦溪의 星州印本の 얘기에 이어 海州本과 平壤本의 誤謬를 言及하고 또 改刊時의 이야기를 한 것¹⁴⁸⁾을 보면, 이 平壤印本도 星州印本과 같은 體裁로 찍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4. 明宗22年(1567) 定州刊 木板本

定州에서 明宗22년에 木板으로 《節要》를 刊行한 것은, 高峯 奇大升이 쓴 <定州刊 朱子書節要跋>이 남아 있어 알 수 있다. (圖11 參照) 이제 그 跋文의 重要的 點거리만 우선 추려보면

…今定州牧柳公仲郢 持西海節又印之… 第皆用活字 印訖旋毀 而所印亦無幾 學者病其傳布之弗廣也 柳公適分符于定 迺謀爲久遠之圖 鳩工聚材 淨寫以履之…

라 있어, 定州牧使로 赴任한 柳仲郢이가 앞서 海州 等地에서 찍은 《節要》들이 모두 活字로 찍었기 때문에 책이 널리 퍼지지 못함을 생각하여 木板으로 刊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定州刊本은 阿部吉雄에 의하면, 日本 內閣文庫에 남아 있다.¹⁴⁹⁾ 그에 따르면 定州에서 刊行한 《節要》는 모두 15卷인것 같다.¹⁵⁰⁾ 이 책 卷末에는 그 刊行經緯를 적은 柳仲郢의 識文이 있다. 柳仲郢의 識文은 《韓國古書年表資料》에도 抄한 것이 있으나¹⁵¹⁾ 너무 簡略하므로, 이제 阿部吉雄가 《日本朱子學と朝鮮》에서 註한 것을 모두 옮겨서 보면 아래와 같다.

右朱子書節要 始與延平李先生 終李深子書 凡四百二十一通 十五卷 是書 本退溪先生手自節約 以便私覽 錦溪黃仲學始印於星州 余叨按西道 又印於海州 而活本旋毀 常以未得廣傳爲恨 歲丙寅 分符于定 得先生後加讐正增註本 及諸子目錄一卷 聚工入梓 然後可以此書之旨 尤益明者 而庶幾學者無不見書之嘆矣 降慶元年丁卯九月下翰 豐城柳仲郢謹識¹⁵²⁾

이 識文을 보면, 柳仲郢이가 明宗21年丙寅(1566)에 《節要》의 板刻을 시작한 것은 틀림없는것 같다. 識에 있는 丙寅年은 柳仲郢이가 定州牧使로 赴任한 해이었으니, 그의 아들 西匡 柳成龍이 쓴 行狀에도

148) 影印本, 二, p. 248上·下.

149) 日本 內閣文庫에 2本이 있는 것은 《韓國古書綜合目錄》에도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實物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 刊本이 어떤 版本인지는 確認할 수 없었다.

150)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昭和40), p. 450.

151) 註131 同書, p. 21.

152) 阿部吉雄, 前掲書, 同面.

…丙寅爲定州牧使 戊辰還朝…¹⁵³⁾

라 하였고, 또 西厓가 그의 赴任에 陪行한 記錄이 西厓의 年譜인 《西厓先生年譜》에

四十五年丙寅(先生二十五歲)春 陪觀察公 往定州 (時觀察公 出牧定州)…¹⁵⁴⁾

라 있는 것을 보면, 그가 赴任한 것은 丙寅年의 봄인것 같으며, 2年後인 宣祖元年戊辰(1568) 3月까지 在任한것 같다.

柳仲郢이가 《節要》를 定州에서 다시 刊行한 것은, 그의 아들 柳雲龍의 권고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柳雲龍이가 이 권고를 올리게된 原因은 海州에서 活字로 적는 《節要》를 校正하면서, 或은 적은 《節要》를 보고서 退溪에게 《節要》의 修改를 稟議한데 있지않았나 생각된다. 《謙菴先生年譜》를 보면, 明宗19年甲子(1564)條에

上書退溪先生稟朱子書節要修改事¹⁵⁵⁾

라 있고, 또 2年後인 丙寅(1566)條에도

又上書 稟定州重刊朱子書節要修正…¹⁵⁶⁾

라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柳仲郢은 《節要》를 刊行함에 앞서, 아들 柳雲龍으로 하여금 退溪에게 書簡을 올리게 한것 같다. 明宗21年丙寅(1566)에 柳雲龍에게 보낸 答書에서

…尊丈令公 又欲刊朱子書 於定州 固知令公此意甚盛…¹⁵⁷⁾

이러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같은 書簡에 이어서

…海州本初卷 近方尋得畢校 多有闕誤· 公昆仲及景文· 不勞離校 而得爲完書…¹⁵⁸⁾

라한 것을 보면, 定州에서 《節要》를 刊行하는데 있어 退溪가 다시 校正한 海州印 活字本을 底本으로 한것 같다. 그리고 刊刻의 校正의 일을 본 것은 “海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柳仲淹 그리고 柳雲龍· 柳成龍 兄弟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退溪가 같은 해(1566)에 柳仲郢에게 보낸 答書에

晦菴書· 方略加贊正補添 而又已有入梓之舉· 前所刊者乎 來論紙頭所添未注入 欲別錄印 附于逐篇之末 · 今見賢胤書 欲仍於紙頭追刊云 ¹⁵⁹⁾

153) 柳成龍, 前揭書, p. 344上.

154) 上揭書, p. 426.

155) 註64 同書, 第4張 뒷面.

156) 上揭書, 第5張 뒷面.

157) 影印本, 二, p. 210下.

158) 上揭書, 同面.

159) 上揭書, 一, p. 383下.

라한 것을 보면, 退溪가 校正한 것은 邊欄위의 餘白 즉 紙頭に 追刊할 것을 相議한 일도 있는것 같다. 退溪는 이에 대하여 梁山에서 刊行한 《朱子年譜》의 例를 들어 無妨함을 얘기하고 있다.

이 定州刊本 《節要》에는 退溪가 編註한 <諸子目錄>을 처음으로 실은 것은 前記한 柳仲郢의 識文에도 밝혀져 있다. 그러나 이 <諸子目錄>을 넣는데 대하여, 若干의 曲折이 있었든것 같다. <目錄>을 넣기 위하여 柳雲龍이가 退溪에게 書簡을 올린 것은 明宗21年丙寅(1566)末인것 같다. 그의 《年譜》 同年條에 보면,

…上書 · 增註目錄事¹⁶⁰⁾

라 있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退溪는 이듬해에 보낸 答書에서

…此目錄 乃視所自…今所草得· 四分之三·¹⁶¹⁾

이라고 目錄이 未完成인 것을 말하고, 또 같은 해에 柳仲淹에게 보낸 答書에서도

目錄 不敢送上 諒察¹⁶²⁾

이라하여 <目錄>을 보내는 일까지도 거절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完刊時에는 <諸子目錄>의 原稿를 보내고야 말았든 모양이니, 高峯 奇大升이 쓴 <定州刊朱子書節要跋>에

…先生 又嘗於玩釋之餘 遇難解處 輒有註語 且成目錄一卷 載其知舊門人姓名事實 以爲窮鄉 晚學祛疑破惑之資 柳公併取以刻之 其書始得完整…¹⁶³⁾

이라 한것과 柳仲郢의 識文을 보면, 結局 함께 刊行되었든 것을 알 수 있다.

<目錄>은 이와 같이 《節要》와 함께 刊行할 수 있었으나, 退溪의 序文은 錦溪가 星州에서 印行할 때와 마찬가지로 받지 못한것 같다. 退溪가 柳雲龍에게 보낸 答書에,

·序文 自以不滿意已去其藁 今難追記亦正…¹⁶⁴⁾

이라한 것과, 退溪의 卒後에 쓴 高峯의 識¹⁶⁵⁾를 보면 알 수 있다.

같은 해에 柳雲龍에게 보낸 答書에

就中錦溪跋語中 混刪去處見 而見書云 仍存刻之 不知此何意耶¹⁶⁶⁾

160) 註64 同書, 第5張 뒷面.

161) 影印本, 三, p. 103下.

162) 上揭書, 二, p. 248下.

163) 日本影印本, 上, p. 417下.

164) 影印本, 三, p. 104上.

165) 日本影印本, 上, p. 5上·下.

166) 影印本, 三, p. 104上·下.

라 말한 것을 보면, 定州에서 刊行한 책에는 錦溪의 跋文을 그대로 둔 것 같다. 이에 대하여 退溪는 그 跋文속의 修改分을 그대로 두었다고 매우 나무라고 있다.

《節要》의 書名을 “晦菴書節要”에서 “朱子書節要”로 바꾼 것도, 이 定州刊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高峯이 쓴 <定州刊朱子書節要跋>의 題를 보아도 알 수 있지만, 退溪가 明宗21年丙寅(1566)에 柳仲淹에게 보낸 答書에

…其題目 改晦菴曰朱子… 貴州刊本亦可盡改同此乎…¹⁶⁷⁾

라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以上과 같은 經過로 《朱子書節要》의 刊行作業을 進行하였으니, 그 本文의 刊行은 늦어도 明宗22年丁卯(1567) 9月까지는 完成한 것 같다. 이는 柳仲郢가 쓴 識文의 끝에 있는

…隆慶元年丁卯九月下辭·

이라는 날자를 보아 짐작할 수 있다. 本文의 刊行은 9월에 하였지만, 그 配布는 高峯의 跋文이 이루어진 11月 以後인 것 같다. <定州刊朱子書節要跋>끝에 있는 글에

隆慶丁卯仲冬日後學高峯奇大升跋

이라고 날자를 밝힌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 定州에서 刊行된 책은 宣祖3年庚午(1570)까지 退溪에게 보내어지지 아니한 것 같다. 退溪가 그 해에 李咸亨에게 보낸 答書에

…朱子書刊本在定州 往還求得似不難…¹⁶⁸⁾

이라 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다.

이 定州刊《朱子書節要》는 內閣文庫에 있는 實物을 實査하지 못하여 알 수 없지만, 그 體裁는 대체로 아래와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 째, 退溪의 序文은 없으며,

둘 째, 總目은 있으며,

셋 째, 各卷首에 <諸子目錄>은 있으며,

네 째, 本文의 邊欄上에는 退溪가 修改한 註가 小字로 追刊되어 있고,

다섯째, 錦溪의 星州印跋이 있고.

여섯째, 柳仲郢의 識文이 있으며,

일곱째, 高峯 奇大升의 定州刊跋

로 끝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167) 上揭書, p. 110上.

168) 上揭書, 二, p. 267上.

5. 宣祖5年(1572)刊 序文 木板本

이 책은 實査하지 못하여 알 수 없으나, 陶山書院에 所藏되어 있는 책이 이 刊本에 해당되지않나 생각된다. 參考로 <陶山書院藏書目錄>에 의하여, 그 體裁를 보면 모두 1冊으로 되어 있으며, 그 版式은

四周單邊. 有界. 9行 19字. 版心: 黑口. 上下內向魚尾

로 되어있다.¹⁶⁹⁾ 이 책은 退溪의 序와 高峯 奇大升의 退溪序에 대한 識文등 모두 5張으로 되어있다. 高峯 奇大升의 識文에

先生此序 成於嘉靖戊午...手自淨寫 藏之巾笥 未嘗出以示人...節要則浸以流布...而序則終不出焉 先生既沒 門下諸人 始得見手稿 咸謂 先生輯錄之意 不可使無傳 遂謄刻 以實卷首云 隆慶六年九月日 後學高峯奇大升謹識

라한것을 보아, 退溪가 돌아간 다음에야 序文의 原稿를 얻어보았으며, 退溪가 《節要》를 編纂한 뜻이 적혀 있으므로 傳하지않을 수 없다하여 刊行한것을 알 수 있다. 이 序文만을 刊行한 또 다른 뜻은, 이미 流布하고 있는 책이 많이 있지만 退溪의 序文은 없으므로, 序文만을 적어서 《節要》의 卷首에 끼우려는 뜻도 담겨 있었든것 같다.

高峯이 識를 쓴 날자가 宣祖3年庚午(1570) 9월이므로, 이 序文만의 刊行도 그 때로 推定할 수 있을것 같다.

6. 宣祖8年(1575) 川谷書院刊 木板本

이 책은 《朝鮮典籍誌》에 의하면 玉山書院과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에 所藏하고 있다.¹⁷⁰⁾ 玉山書院本은 《李朝書院目錄》에 따르면 零本 4冊이 남아 있다.¹⁷¹⁾ 高大本은 17冊이 남아 있다. 이 두가지 藏本 모두를 實査하지 못하였으나, 後者에 대하여는 사람을 시켜 調査한 記錄이 있어 그 대강은 알 수 있다. 이제 그 版式을 보면

四周雙邊. 半匡: 21.3×16.3cm. 有界. 10行 18字. 版心: 上下白口(或黑口) 上下 內向細六瓣花紋魚尾(單線. 單絲)

로 되어 있다. 이 刊本은 阿部吉雄에 따르면, 日本에서 明曆2年(1656)에 刊行할 때에 底本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後의 日本刊本들은 이 川谷書院刊本의 차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한다.¹⁷²⁾ 따라서 그 內容과 차례는 《日本刻版 李退溪全集》上에 影印 收

169) 註32同書, p. 122.

170) 尹炳泰, 朝鮮典籍誌, 組版 印刷中.

171) 註93 同書, p. 85.

172) 日本影印本, 上, 卷首, 「解題」

錄한 것과 같다.

다만 다른 點이 있다면, 이 川谷書院刊本에는 高峯 奇大升의 跋文 다음에

萬曆乙亥季夏重刊于川谷書院 葑年而工畢

이라는 刊記가 더 있다는 點이다. 이 刊記에 의하여 알 수 있, 이 책은 宣祖8年乙亥(1575) 6월에 川谷書院에서 重刊한 木板本이다. 이 책이 壬辰戰前에 刊行되어서인지, 《攷事撮要》에도 “星州”의 “冊板”條에 收錄되어 있으며,¹⁷³⁾ 또 《韓國古書年表資料》에도 그 해에 刊記가 採錄되어 있다.¹⁷⁴⁾

이 版本을 川谷書院에서 刊行한 것은 그 分明한 記錄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아마도 寒岡 鄭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 까닭은, 첫째 《陶山及門諸賢錄》의 記錄에 따르면, 寒岡은 退溪의 弟子이며,¹⁷⁵⁾ 둘째로는 그가 晩年을 川谷書院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셋째는 川谷書院에서 다른 책을 刊行한 일이 있는 까닭이다. 仁祖4(1626)년에 羅州에서 木活字로 적어낸 《薛文清公讀書錄要語》의 卷末에 있는 鄭述의 〈序〉에 따르면

…余舊刻之 川谷書院…¹⁷⁶⁾

이라 있고, 또 이를 뒷바침하는 글이 《韓國書誌年表》의 宣祖7年(1574)條에

是春 川谷書院에서 薛文清公讀書錄要語를 刊行하다.¹⁷⁷⁾

라고 나와 있음을 보아, 그 보다 1年後인 宣祖8年(1575)에 《朱子書節要》를 寒岡이 刊行하였다고 推定하는 것은 無理가 아닌 것 같다.

高大本을 본 感想으로는, 이 川谷書院 重刊本은 乙亥字印本을 覆刻한 것과 같은 印象을 주고 있다. 重刊의 底本이 된 乙亥字本의 印行 與否는 그 印本과 記錄이 알려지지 않아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定州刊本을 底本으로 하고 거기에다 退溪의 序文을 붙이고 重刊하였을 可能性도 있으나, 이 역시 定州刊本을 보지 못하여 알 수 없다.

이 책을 刊行한 場所인 川谷書院은, 《嶼南誌》의 記錄에 따르면 星州郡에 있으며, 明宗13年(1558)에 當時의 牧使인 盧慶麟에 의하여 創建되어, 2年後인 明宗15年(1560)에야 錦溪에 의하여 完工한 書院이다.¹⁷⁸⁾ 初期에는 迎鳳書院이라 이름지었다가 나중에 川谷書院으로 改名한 것이다. 錦溪가 《迎鳳書院志》를 編纂·印出할 때에 退

173) 註96 同書, 第43張 뒷面.

174) 註131 同書, p. 23.

175) 影印本, 四, p. 374下~375上.

176) 尹炳泰 輯, 書誌學選讀 (서울: 景仁文化社, 1977), p. 86.

177) 註9 同書, p. 60.

178) 鄭原錦 編, 嶼南誌 (大邱: 李根泳, 1940, 鉛印本), 卷之十三, 第5張 뒷面.

溪가 그 記를 지어준 일도 있는만큼, 退溪로서도 因緣이 있는 書院에서 《朱子書節要》가 刊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刊刻한 《節要》의 板木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 行方에 대하여는 아무런 記錄이 없어 알 수 없으나, 前記한 《薛文淸公讀書錄要語》에 있는 鄭述의 〈序〉에

…既火於壬辰之變…¹⁷⁹⁾

이라 있는 것과, 壬辰戰 以後의 冊板目錄에 그 書名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壬辰戰時에 《薛文淸公讀書錄要語》의 板木과 함께 燒失되지 않았나 생각되나 알 수 없다.

7. 宣祖19年(1586) 羅州牧刊 木板本

이 刊本은 그 實物이 알려지지않아 알 수 없으나, 鶴峯 金誠一의 〈年譜〉 宣祖19年 丙戌(1586)條에서

…秋刊朱子書節要 退溪先生自省錄…¹⁸⁰⁾

라 있는 것으로 보아, 宣祖19年 가을에 鶴峯이 《朱子書節要》를 刊行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때 鶴峯은 羅州牧使로 在任하고 있을 때였다.

鶴峯 金誠一은 《陶山及門諸賢錄》에 의하면 退溪의 弟子였으며,¹⁸¹⁾ 退溪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였든 까닭이어서인지 그에게 보낸 書簡도 많이 남아 있다. 退溪가 돌아간 다음에 退溪의 實記나 言行錄을 가장 該精하게 編纂한 것을 보아도, 그와 退溪와의 사이가 가까웠든 것을 알 수 있다.

鶴峯이 羅州牧使로 任命된 것은, 그의 《年譜》에 따르면 宣祖16年(1583) 7月이었으며, 赴任한 것은 그 해 8月이었다. 그는 赴任한 2年後인 宣祖18年(1585)에는 退溪가 지은 《聖學十圖》와 《溪山雜詠》을 刊行하였고, 뒤이어 곧 《朱子書節要》와 《退溪先生自省錄》을 刊行하기에 이른것 같다.¹⁸²⁾ 이 두가지 책 중에서 《退溪先生自省錄》은 그 量이 많지않아서인지 宣祖18年(1585) 겨울에 바로 刊行된것 같으니, 《朝鮮典籍誌》를 보면 「萬曆十三年乙酉冬羅州牧開刊」이라는 刊記가 있는 책이 여러곳에 남아 있다.¹⁸³⁾

鶴峯이 《朱子書節要》를 刊行한 理由는 그가 退溪의 愛弟子라는 까닭도 있겠으나, 그의 〈行狀〉에

…最愛李先生節要朱子書… 以爲持身標的 潛心玩味 至忘寢食 雞鳴而起 必抽誦一二牘. ¹⁸⁴⁾

179) 註176 同書, p. 86.

180) 註22 同書, p. 213.

181) 影印本, 四, pp. 358~360.

182) 註22 同書, pp. 212~213.

183) 註170 同書.

184) 註22 同書, p.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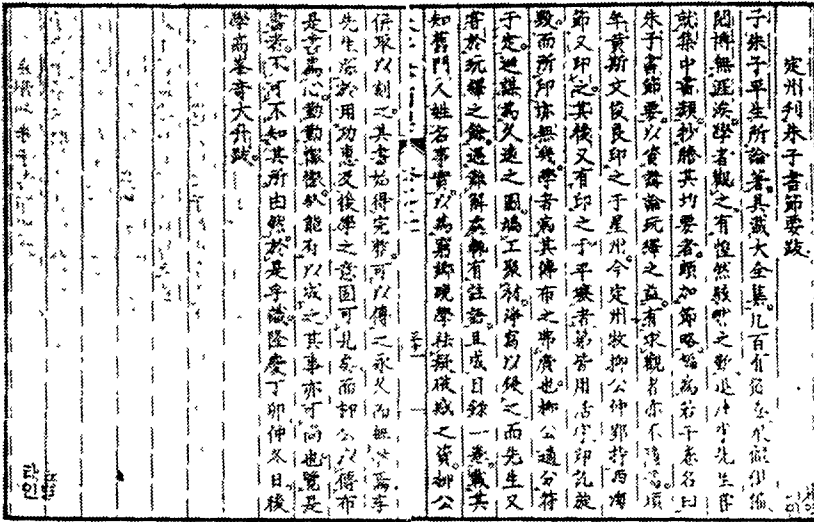


圖 11. 定州刊朱子書節要跋 (高大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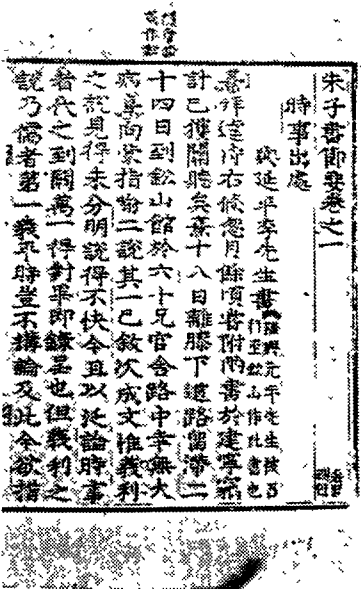


圖 12. 全州府刊 木板本 卷之一 第1張 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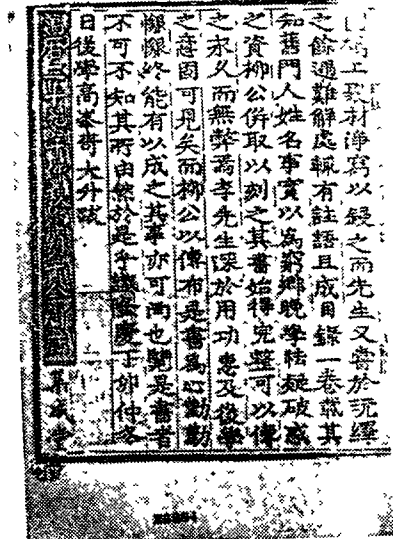


圖 13. 全州府刊 木板本 跋末 刊記

이라 있고, 또 같은 內容의 글이 그의 <神道碑銘>에도 있는것¹⁸⁵⁾으로 보아, 退溪가 編纂한 《朱子書節要》를 매우 愛讀한 까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羅州牧에서 開刊하기 시작한 《朱子書節要》는, 前述한 바와 같이 그 存本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宣祖18年(1585)頃에 刊行된 《攷事撮要》의 “羅州”條 “冊板”項에서는 “鄉校”아래에 退溪著作의 다른 刊行物은

· · 自省錄 溪山雜詠...¹⁸⁶⁾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節要단은 들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點을 미루어 보아, 宣祖18년에는 刊行中이었으며 그 이듬해에 이르러서야 鶴峯의 <年譜>의 記錄대로 刊行되었지않나 생각된다.

이 《朱子書節要》는 그 板刻이 完了되어 刊行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板木은 壬辰戰亂으로 없어진것 같으니, 그 以後의 어느 冊板目錄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던 짐작할 수 있다.

8. 光海3年(1611) 全州府刊 木板本

光海3年(1611)에 全州府에서 《朱子書節要》를 木板으로 重刊한 것은 그 印本이 남아 있어 알 수 있다. 《朝鮮典籍誌》에 의하면, 이 全州 重刊本은 國立中央圖書館, 奎章閣(韓國本 및 中國本), 藏書閣, 延世大學校中央圖書館, 嶺南大學校圖書館 陶南文庫, 日本 內閣文庫 그리고 誠菴古書博物館의 藏本 등이 알려져있다.¹⁸⁷⁾

이 중에서 實查한 것은 奎章閣 韓國本 속의 一本으로 奎 1276이라는 請求記號를 가진 책이다. 이 책은 모두 20卷 10冊으로된 木板本이며, 그 크기는 세로가 33.6cm이고, 가로(폭)가 21.6cm인 線裝 方冊本이다. 參考로 卷之一 第1張 前面의 版式을 보던

四周双邊. 半匡: 21.1×16.2cm. 有界. 10行 18字, 註小字双行. 版心: 上下白口. 上下內向太六瓣花紋魚尾(單線. 單弧)

의 같다. (圖12 參照) 이 第1張 前面에서의 特徵은 欄上의 註에 邊欄이 없는 것과, 花紋이 整한 點이다. 本文의 小字註 첫머리에 黑魚尾가 있는 것과, 本文속의 要語에 小圓圈을 붙인것, 그리고 朱熹의 “壽”字를 括弧로 묶어 避諱를 意味한 點등은, 이보다 뒤에 나온 여러 版本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 全州府刊 《朱子書節要》는 卷首에 退溪의 <序>가 있는 것부터 始作하여, 卷末에

185) 上揭書, p. 272.

186) 註96 同書, 第41張 前面.

187) 註170 同書.

이르러 高峯 奇大升의 <定州刊跋>까지의 內容과 차례는 川谷書院本과 같다. 이와 같은 일들을 미루어보아 全州府刊의 底本은 川谷書院本이 아니었다 생각된다.

이 全州府刊本에서 다른 點이 있다면, 卷末의 高峯이 쓴 <跋> 第4張 뒷면의 마지막 行에

萬曆三十九年仲秋重刊于全州府

라는 刊記가 陰刻으로 雕刻되어 있는 點이다. (圖13 參照) 이 刊記에 의하여 全州府에서 《朱子書節要》를 光海3年(1611) 8월에 重刊한것을 알 수 있다. 《全州府史》의 卷末에 있는 <全羅道先生案>을 보면,

尹 暉 通政 三十八年庚戌(○同二年)四月到界三十九年辛亥(○同三年)二月辭遞
鄭經世 嘉善 同 二月到界九月遭彈遞¹⁸⁸⁾

라 있어, 愚伏 鄭經世가 光海3年(1611) 2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全羅監司로 在任하였음을 알 수 있다. 《愚伏先生別集》卷之四에 있는 <年譜>를 보면 같은 해의 記事에

六月刊朱書節要

先生 常以此書爲最切於學者 恨國中流布不廣 至是開役于錦山 親自檢看 間或付別考 於各編之末 以訂其註解之訛 下陰月訖功¹⁸⁹⁾

이라 있어, 《朱子書節要》는 錦山에서 板刻한것 같다. 이 때 愚伏은 손수 監督하면서 校正하고 또 註解의 誤字를 修訂하면서, 着工한지 1個月만에 끝난것을 알 수 있다.

鄭經世가 《朱子書節要》를 刊行한 것은 위의 글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節要》가 國중에 널리 퍼지지 못한 것도 理由이겠지만, 退溪가 그의 스승인 西厓 柳成龍의 스승이라는 點이 더 큰것 같다.

愚伏이 刊行한 이 全州刊本은, 愚伏 혹은 그 後任의 全羅監司인 李冲에 의하여 많이 印刷되어 서울로 上送하였던것 같다. 이렇게 上送한 《朱子書節要》의 一部는 여러 史庫에도 內賜하였던 모양으로 奎章閣에는 太白山과 五臺山史庫에, 그리고 藏書閣에는 妙香山史庫에 內賜한 책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 책들의 첫冊 前面紙에는 各

萬曆四十年十二月 日 內賜...

로 始作하는 內賜記가 있다. 이 內賜記로 미루어보아 서울에서 史庫로 보내어진 때는, 全州府에서 刊行한 이듬 해인 光海4年(1612) 12월임을 알 수 있다.

錦山에서 刊刻한 全州府刊本의 板木은 계속하여 오랜동안 錦山에 그대로 安置하고 있었든것 같다. 《韓國冊板目錄總覽》에 의하면

188) 全州府 編, 全州府史 (全州: 全州府, 1943), p. 1012.

189) 鄭經世, 愚伏先生別集 (愚山書院, 光武3(1899)跋, 木板本), 卷之四, 第27張 前面.

朱子節要

錦山

白紙 二十三卷 (冊板置簿冊)

白紙 二十三東 副 (完營冊板目錄 1.23A)

一秩 紙 二十三東 副秩 (五車書錄)¹⁹⁰⁾

이라 있는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이 板木으로 책을 찍었던 일은 純祖8年(1808) 5月 12日字 《日省錄》과 《承政院日記》를 引用한 《韓國書誌年表》의 同日字 記事에

5月12日 成均館 尊經閣에 들 書籍을 各道 各 邑中 板本이 있는곳에 命하여 印出케함.
즉 …朱書節要是 錦山·禮安에서 …印行케함.¹⁹¹⁾

이라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으며, 이 板木들은 늦어도 純祖8年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든것 같다. 그리하여 成均館 尊經閣에 들 《朱子書節要》를 禮安 陶山書院에 있는 板木과 함께 刷出하여 올리게한것을 알 수 있다. 이 板木이 지금도 그대로 錦山에 남아 있는지는 調査하여보지 않아 알 수 없다.

9. 日本 明曆2年(1656)刊 木板本

이 책은 《韓國古書綜合目錄》에 日本 成實堂文庫 藏本과 尊經閣文庫 藏本이 收錄되어 있어,¹⁹²⁾ 그 刊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版本을 實査한 阿部吉雄의 글에 따르면, 이 책은 木板本으로 모두 20卷 10冊으로 되어 있다. 이 明曆刊本은 日本版本으로서는 最初의 刊本이라 阿部吉雄는 말하고 있다.¹⁹³⁾ 이 책의 차례는 <日本刻版 李退溪全集>에 收錄된 것과 같으며, 다만 高峯 奇大升의 <定州刊版> 다음에 明曆刊本の 底本の 刊記인

萬曆乙亥季夏重刊于川谷書院。恭年而工畢

이라는 글이 더 있는 點이 다른 點인것 같다.¹⁹⁴⁾ 이 底本の 刊記를 보아, 日本에서 明曆2年에 刊行한 책은, 宣祖8年(1575) 6月에 星州 川谷書院에서 刊行한 책을 底本으로 刊行한 것이 틀림없다. 이 明曆2年刊本에 뒤이어 刊行한 책의 版式중 특히 版心에서 朝鮮版本의 形態를 그대로 남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明曆刊本도 朝鮮版의 版式을 그대로 본따지않았나 생각된다.

이 明曆刊本の 底本이 되었던 川谷書院刊本이 언제 어떻게 하여 日本에 傳하여졌는

190) 尹炳泰 編, 韓國冊板目錄總覽, 未刊行原稿.

191) 註9 同書, p. 131左.

192) 註6 同書, p. 649.

193) 日本影印本, 上, 卷首, 「解題」

194) 阿部吉雄, 前掲書, p. 436.

지 알 수 없으나 刊行年代로 미루어 보아 壬辰戰時에 가져갔을 可能性이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때 傳하여졌을 川谷書院本에는 退溪가 李湛에게 보낸 書簡인 〈答李仲久〉라는 答書의 抄¹⁹⁵⁾도 있었든것 같다.

이 版本의 卷末에는

明曆第貳(丙申)稔仲冬日
荒木利兵衛刊行¹⁹⁶⁾

이라는 刊記가 밝혀져있어, 1656年 우리나라로는 孝宗7년에 荒木利兵衛에 의하여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日本 寬文11年(1671)刊 木板本

이 日本刊本은 《韓國古書綜合目錄》에 日本 大谷大學藏 20卷 20冊이 收錄되어 있고¹⁹⁷⁾ 또 阿部吉雄가 《日本朱子學と朝鮮》에서 紹介하였음¹⁹⁸⁾으로 일찍부터 알려지고 있었다. 이 刊本은 1975년에 같은 阿部吉雄에 의하여, 《日本刻版 李退溪全集》上에 全冊이 收錄 影印되면서부터 國內에도 널리 流布되었다.

影印本에 따르면, 이 版本은 모두가 20卷으로 되어 있다. 이 책 卷之一 第1張 앞면의 版式을 보면

四周双邊. 無界. 10行 20字. 小字双行. 假名吐 및 返點有. 版心: 上下白口. 上下內向六瓣花紋魚尾(單線. 單弧) 魚尾內 單線 下 張次.

와 같다. (圖14 參照) 이 版式과 그림에 보이는 版心の 形態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 刊行한 책과 매우 類似하다. 阿部吉雄에 의하면, 이 版本은 前記 明曆 2年刊本을 若干 고쳐서 刊行한것 같다. 우선 榻上에 《朱子文集》과의 文字가 다른 것을 附刻하였으며, 內容의 誤字 誤訓도 많이 訂正하였고, 卷末에 있는 川谷書院의 刊記를 削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黑岩慈庵의 跋文을 붙인것 같다.¹⁹⁹⁾

이 寬文11年刊本의 머리에는 〈朱子書節要序〉가 있다. 〈序〉의 끝에는 高峯의 識가 있다. 이 〈序〉와 《識》는 글씨가 굵어 半葉에 8行 15字가 들어 있다. 〈序〉와 識文 6張이 끝나면 〈朱子書節要總目〉 3張이 繼續된다. 이 〈總目〉이 끝나면 本文이 始作되는데 各卷의 卷首에는 〈朱子書節要卷之○諸子目錄〉이라하여 〈諸子目錄〉이 있다. 本文의 차례와 張數는 前記한 表 1과 같다.

本文20卷이 끝나는 마지막 第20冊의 卷末에는 먼저 錦溪 黃俊良이 쓴 〈星州印晦菴

195) 影印本, 一, pp. 298上~299下.

196) 日本影印本, 上, p. 420.

197) 註6 同書, p. 649.

198) 阿部吉雄, 前掲書, p. 436.

199) 日本影印本, 上, 卷首, 「解題」

宋子書節要卷之一
時事比擬
○與延平李先生書 陸與元半先生書
蘇釋建侍右條公月信以香附贈香於羅羅羅計已
獲關張於十八日離膝下道認留滯二十四日到
鎮山館於六十日首發塔中幸無大痛黑脚家指索
二一或其一已依次成文惟存打之說只得未分說說
仍不扶公且以次為解事流於之到附篇一得實集
即錄也但義利之說乃在第五卷十卷平時並不詳
論及此今欲據解時事而在然不知所以為說無乃

圖 14. 日本寬文 11年刊 木板本 卷之一 第1張 望面

朱子書節要跋
書曰雖其難易事于曰博學而詳說之將以
及說約也夫讀古人之書而得其要者固難
焉得古人之書而得其要者尤難焉故非兼
理究窮之久而至於融會貫通之地其說能
之若夫彼以誇多顯其身功則不啻無母
使學若如木草之無所歸矣夫其文章之有
固無所不備而講習之精傳註之近遠詳略
亦各有其宜若居後列則采中之要而節其
編又舉中之要而節其於於於於於於於於
無難且積矣有裨於後學其益不少矣予
有志乎朱子之遺教之校之其可訓點以備
覽云
寬文十一年辛亥春二月良日
黑岩慈庵跋
二條通玉屋町
上村次郎右衛門知行

圖 15. 日本 寬文 11年刊 木板本 卷末 跋 吳 刊記

書節要跋>이 있다. 이 跋의 張次는 새로이 始作하여 2張이 있다. 이어서 第3張에는 高峯 奇大升이 쓴 <定州刊朱子書節要跋>이 있다.

高峯의 跋文이 끝나면, <附退溪李先生答李仲久書>라는 題로 退溪가 李湛에게 보낸 書簡이 새로운 張次로 모두 3張이 붙어 있다. 이 書簡이 끝난 다음에 日本에서 《朱子書節要》를 校正한 黑岩慈庵의 跋文이 있다. 그 跋文에서 黑岩慈庵은 “朱子の 書翰은 《朱子文集》속에서 講習의 精과 傳注의 蘊을 볼 수 있고, 退溪의 節要是 要中の 要한 것을 編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跋文의 끝에

寬文十一年辛亥春二月良日
黑岩慈庵跋

이라는 날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跋을 쓴 것은 1671年, 우리나라로는 顯宗 12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跋文을 쓴 黑岩慈庵은, 阿部吉雄가 쓴 글에 의하면 1627年에 나서 1705년에 돌아간 분이며, 名은 壽 一名 恒이라고 하고, 字는 震翁으로 慈庵이라는 號 以外에도 東峯·幽峯등의 號가 있다한다.²⁰⁰⁾ 日本 土佐의 사람으로 野中兼山과 山崎闇齋에게 師事하였으며, 《歷代君臣要略》등 여러가지 著作도 남긴 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가 退溪에 心醉하여 《朱子書節要》를 校訂한 것은 그의 스승 山崎闇齋의 影響을 많이 받은 까닭인것 같다. 이 책 마지막에는 黑岩慈庵이 쓴 跋文 다음에

二條通玉屋町
上村次郎右衛門刊行

이라는 刊記 (圖15 參照) 2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版本은 上村에 의하여 刊行된 것과 黑岩慈庵이 跋文을 쓴 1671年에 刊行된 것으로 생각된다.

11. 日本 寬文11年(1671)刊 別版 木板本

阿部吉雄의 《日本朱子學と朝鮮》에 의하면, 日本에서 1671年에 刊行한 異本 一種이 있는것 같다.²⁰¹⁾ 阿部吉雄가 나중에 쓴 解題에 따르면, 이 책은 前記한 版本과 完全히 同一하며, 다만 卷末에 있는 黑岩慈庵의 跋을 없애고, 그자리에

寬文十一曆辛亥仲春日
二條通玉屋町
上村次郎右衛門刊行

이라는 刊記만 붙인 것으로 되어 있다.²⁰²⁾ 實物을 調査하여보지 못하였으므로 前記本과 이 책과의 刊行에 있어 그 先後는 若干 疑心이 간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黑岩慈

200) 上掲書 同「解題」
201) 阿部吉雄, 前掲書, p. 436.
202) 日本影印本, 上, 卷首, 「解題」

庵의 跋文을 붙이지 않고 刊行하였다가 나중에야 붙일 수도 있으며, 反對로 있는 跋을 없애고 刊記가 있는 板만 새로이 刻하여 붙일 수도 있는 까닭이다.

12. 日本 寶永6年(1709)刊 木板本

이 책은 《韓國古書綜合目錄》에 日本 神宮文庫藏本の 刊本 20卷20冊이 收錄되어 있어 알려지고 있었다.²⁰³⁾ 이 책을 實査하여 보지 못하여 알 수 없으나, 阿部吉雄가 쓴 〈解題〉에 따르면 前記 2種의 寬文11年刊本과 完全히 同一 板本으로 밝혀지고 있다.²⁰⁴⁾ 다만 이 版本의 卷末에는 黑岩慈庵의 跋文이 있으나 그날자가

寶永六年己丑秋九月良日

로 되어 있어, 이 책을 찍은 것은 1709年 우리나라로는 肅宗35年이라는 것만은 틀림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 跋文의 날자를 쓴 해로 되어있는 1709年은 黑岩慈庵이 死亡한 以後임이 밝혀졌다. 이 가짜 날자가 붙은 跋文의 다음에는

攝津高麗橋一丁目

書肆 伏見屋藤三郎

이라는 글이 있어, 伏見屋에 의하여 刊行 發賣된 것을 알 수 있다.

13. 英祖19年(1743) 陶山書院刊 木板本

이 版本은 《韓國古書綜合目錄》에 의하면 奎章閣과 成均館大學校 中央圖書館藏本이 알려져 있다.²⁰⁵⁾ 그러나 未詳本 속에서 다시 알려진 것과 새로이 알려진 책을 《朝鮮典籍誌》에 의하여 알아보면 서울 大學校 中央圖書館,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山氣文庫, 內塘文庫, 深谷書院, 誠菴古書博物館, 仁壽文庫 그리고 陶山書院藏本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實査한 것은 奎章閣과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本이다.

이 版本은 木板本이며 모두 20卷 10冊으로 되어있는 線裝方冊이다. 그 크기는 세로가 31cm, 가로(폭)가 21.4cm 이다. 이 책 卷之一 第1張 前面의 版式을 보면,

四周双邊. 半匡: 21.5×16.3cm. 有界, 10行 18字, 註小字双行. 版心: 上下白口. 上下內向太六瓣花紋魚尾(單線, 單絲)

와 같다. (圖16 參照) 이 第1張 前面에서의 特徵을 錦山刻本과 對照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서로 같고 다른 點이 눈에 뜨인다.

첫째. 陶山本에는 欄上의 註에 굵은 單線의 處欄이 있는데 비하여, 全州本에는 處

203) 註6 同書, p. 649.

204) 日本影印本, 上, 卷首, 「解題」

205) 註6 同書, p. 649.

欄이 없는 點

둘째, 陶山本 第7行의 “喜”字 옆에 작은 墨圈이 있는데 비하여, 全州本은 작은 白圈이라는 點

셋째, 陶山本의 第6行 第6字와 第7行의 第6字 아래에 各各 小圓圈을 찍은데 비하여, 全州本에는 없다는 點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의 特徵은 대체로 全州本과 같은 것으로 보아, 이 陶山本은 全州本을 底本으로 다시 改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陶山本의 차례는 全州本과 마찬가지로, 退溪의 〈序〉와 高峯의 識, 〈總目〉, 各卷 卷首의 〈諸子目錄〉과 本文, 李菴의 答書, 錦溪의 〈星州印跋〉, 그리고 高峯의 〈定州刊跋〉의 順으로 되어 있다. 어떤 책을 보면, 退溪의 答書와 〈星州印跋〉 그리고 〈定州刊跋〉이 첫 冊 卷首의 高峯 識文 다음에 綴하여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책과 全州本 사이의 마지막 다른 點은 高峯의 〈定州刊跋〉이 끝나는 第4張 마지막 行에 邊欄을 한字 올려

上之十九年癸亥秋陶山書院刊

이라는 刊記(圖17 參照)가 있는 點이다. 이 刊記에 의하여 英祖19年癸亥(1743) 가을에 陶山書院에서 刊行한 것을 알 수 있다. 刊行한 다음에 그 板木은 그대로 陶山書院에 두었던 모양으로, 徐有榘가 奉命編纂한 《鈹板考》에도

禮安陶山書院藏印紙二十二牒十張²⁰⁶⁾

이라 있거니와, 《韓國冊板目錄總覽》에도

朱書節要

禮安

白紙二十三東(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

白紙二十三東八張 新刊(嶠南冊錄)

容入紙 二十四卷 刊缺(各道冊板目錄, 29B)

白紙 三東八丈(完營冊板目錄, 37A)

紙 三東八丈(五車書錄)

十卷 白紙 二十三東十五張 在陶山書院(書冊目錄)

十卷 白紙 二十三東十五張(嶺南冊板)

三東八丈(諸道冊板錄, 23B)

板(嶠南誌 卷十二, 三南冊板, 14A; 禮安縣邑誌)

安東 陶山書院

容入白紙 二十四東(慶尚道邑誌)

容入白紙 貳拾四東(禮安郡邑誌)²⁰⁷⁾

206) 徐有榘, 鈹板考, 洪命亨 校訂(京城:大同出版社, 昭和16), p. 168.

207) 註190 同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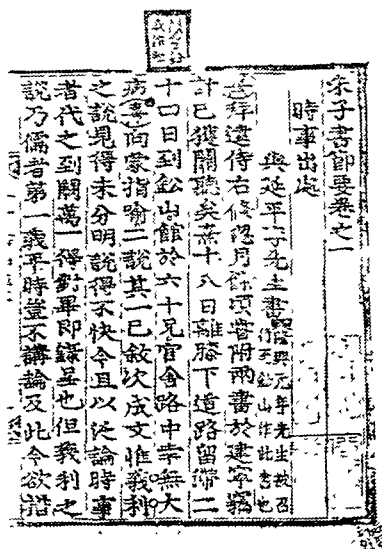


圖 16. 陶山書院 初刊 木板本 卷之一 第1張 앞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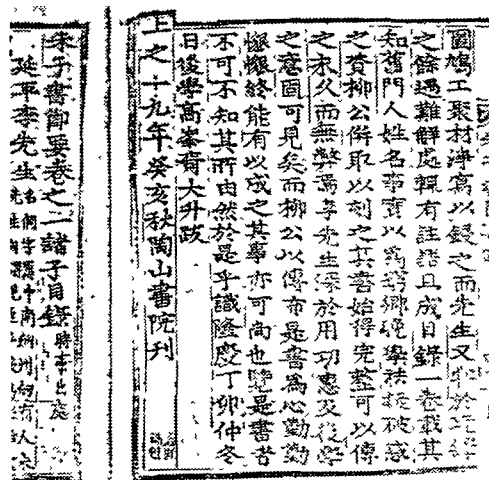


圖 17. 陶山書院 初刊 木板本 刊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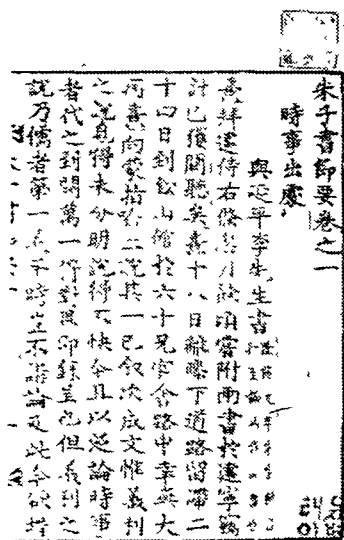


圖 18. 壬辰字本 卷之一 第1張 앞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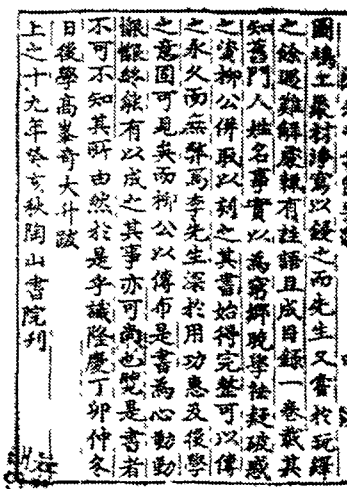


圖 19. 壬辰字本 底本の 刊記

라고 記錄되어 있어, 많은 冊板目録에서 言及하고 있다. 이 英祖19年의 板木에 대하여는 後述하는 重刊本에서도 다시 言及하게 됨으로 그리로 미룬다.

이 책을 英祖19年에 刊行한 것은 退溪의 後孫인 世德과 龜應의 在世時가 아니었나 생각되나, 資料를 求하지 못하여 斷言을 保留할 수 밖에 없다.

14. 正祖年間 校書館印 壬辰字 活字本

이 活字本은 《韓國古書綜合目録》에 奎章閣과 國立中央圖書館에 있는 藏本이 收錄되어 있어 알 수 있다.²⁰⁸⁾ 그밖에 延世大學校中央圖書館에도 所藏한 一本이 最近 알려졌다.²⁰⁹⁾ 實査한 책은 奎章閣本이다.

奎章閣에는 同一 版本이 3部나 있는데, 그 중에서 奎 703이라는 請求記號를 가진 책에 의하여 보면, 모두 20卷 10冊인 線裝方冊으로 그 크기는 세로가 28.5cm이고, 가로(폭)가 20.3cm이다. 卷之一 第1張 前面의 版式을 보면,

四周單邊, 半匡: 24.7×17cm. 有界. 10行 18字, 註小字双行. 版心: 上下白口. 上下內向
太四瓣花紋魚尾 (單線. 單絲)

로 되어 있다. (圖18 參照) 이 版本의 特徵은 欄上의 註가 없으며, 또 本文 옆에 붙인 여러가지 傍點들을 모두 없앤 點, 그리고 版心題를 적은 活字의 크기가 本文을 적은 活字의 크기와 꼭 같다는 點이다.

이 책을 찍은 活字는 그 字體로 보나, 若干 磨滅된 活字를 混用한 것으로 보나, 校書館 즉 外閣에 所藏하고 있는 壬辰字로 찍은 것 같다.

이 壬辰字本의 차례는 陶山書院 刊本과 꼭 같으며, 冊別로 묶은 卷次도 같다. 그리고 第10冊 卷末에 있는 高峯 奇大升의 〈定州刊跋〉 第4張 마지막 行에

上之十九年癸亥秋陶山書院刊

이라는 底本의 刊記까지 꼭 같이 남아 있다. (圖19 參照) 다만 이 刊記에서 陶山書院 刊本과 다른 點은, 刊記의 첫글자를 陶山書院本에서는 欄上 第1字와 같은 位置에서 雕刻한데 비하여, 壬辰字本에서는 올려서 組版하지 않았다는 點이다.

이 底本의 刊記가 組版되었으므로, 壬辰字로서 찍은 活字本은 陶山書院에서 英祖 19年癸亥(1743)에 木板本으로 刊行한 책을 底本으로 다시 印出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朝鮮朝에 있어서 이와 같이 私刊의 木板本을 底本으로 官刻하거나 活字로 轉印한 例는 그리 흔하지 않는 일이다.

이 壬辰字本이 언제 印出되었는가는 正確한 印出記가 없고, 또 記錄도 미처 찾아

208) 註6 同書, p. 649.

209)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古書目録 (서울: 同館, 1977), p. 57.

보지 못하였으므로,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짐작한다면 正祖 15~19年(1791~1795)頃이 아닌가 생각한다. 《嶠南賓興錄》에 의하면 正祖는 16年壬子(1792)에 閣臣李晩秀를 陶山書院에 보내어 退溪에게 賜祭한 일이 있으며,²¹⁰⁾ 또 18年甲寅(1794)에는 退溪가 手訂한 《心經》을 보고 느낀 말을 적은 글과 筵說이 남아 있음²¹¹⁾을 보아, 이때를 前後하여 退溪에 대한 尊崇의 心情으로 校書館에 命하여 印行하게 하지않았나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關係資料가 나중에 따라 確認될 것으로 믿는다.

15. 日本 明治41年(1871)刊 木板本

이 木板本은 《韓國古書綜合目錄》에 收錄되어 있어 알 수 있다.²¹²⁾ 阿部吉雄도 이와 같은 版本을 보았던 모양으로 그의 《日本朱子學と朝鮮》에서 言及하고 있다.²¹³⁾ 《韓國古書綜合目錄》에 따르면, 國內의 存本으로는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 藏本만이 記錄되어 있다. 《朝鮮典籍誌》에 의하면 日本 國立國會圖書館에도 같은 책이 所藏되어 있다.²¹⁴⁾ 實査한 것은 前記한 高麗大學校 藏本이다.²¹⁵⁾ 이에 따르면 모두 20卷 20冊으로 되어 있으며, 卷首는 第1冊에 卷之一과 함께, 卷末의 跋은 第20冊에 卷之二十과 함께, 그 밖의 每卷은 每冊에 各1卷分이 分綴되어 있으며, 그 크기는 세로가 25.6cm이고 가로(폭)가 18.3cm이다.

表紙는 靑色으로 되어 있으며, 白紙에다 木板으로 찍은 題簽을 붙이고 있고, 針眼도 日本式의 四針眼이 아닌, 五針眼으로 綴한 線裝方冊이다. (圖20 參照)

第1冊의 卷首에는

朝鮮 退谿李先生編輯
朱子書節要
明治辛未再鐫 全二十卷

라는 標題紙(圖21 參照)가 있으며, 標題紙 裏面에는 「神龜書庫藏梓」라는 方形朱印이 印刷되어 있다. 標題紙에 이어 退溪가 쓴 〈朱子書節要序〉 4張이 있다. 이 4張의 〈序〉는 本文의 글자보다 큰 글자로 되어 있다. 參考로 그 版式을 보면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匡: 19.8×14.4cm. 有界. 9行 18字. 句讀點·片假名吐·返讀點有. 版心: 「朱子書節要」上 黑魚尾(單線, 單絲) 「卷之一」 〈序一〉 雙線, 下白口.

와 같다. 〈序〉 第4張 뒷面에는 退溪의 글이 끝난데 곧 이어 高峯 奇大升의 識가 있

210) 影印本, 四, p. 414.

211) 上掲書, pp. 407~408.

212) 註6 同書, p. 650.

213) 阿部吉雄, 前掲書, p. 436.

214) 註170 同書.

215) 請求記號, D6-A7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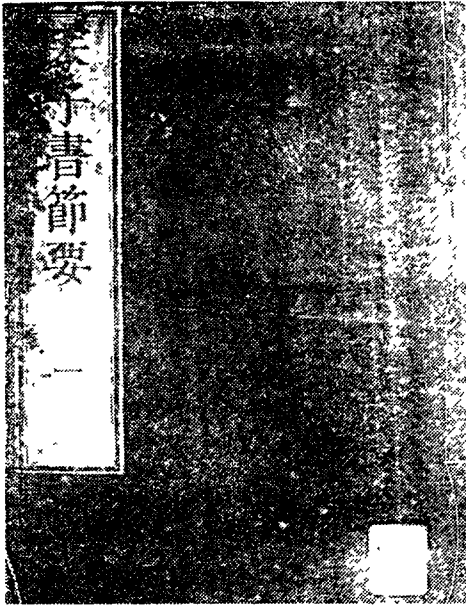


圖 20. 日本 明治刊本 表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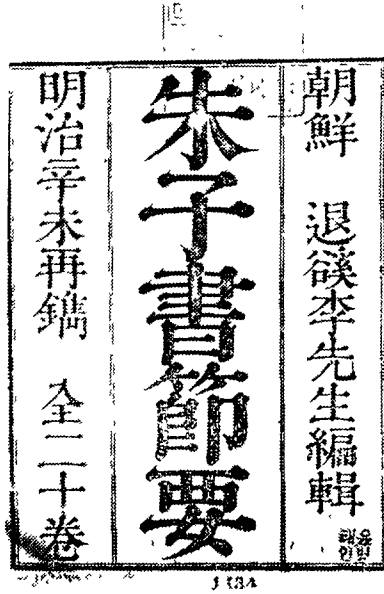


圖 21. 日本 明治刊本 標題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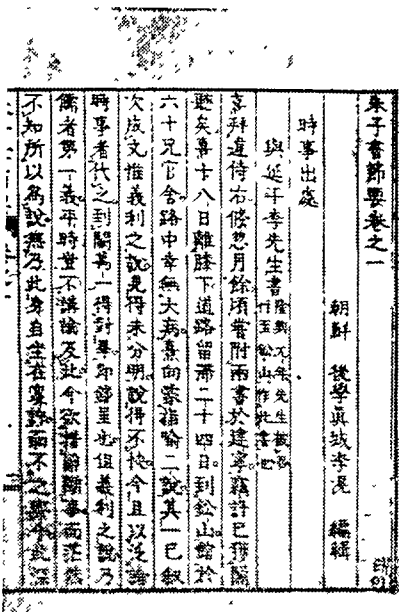


圖 22. 日本 明治刊本 卷之一 第1張 裏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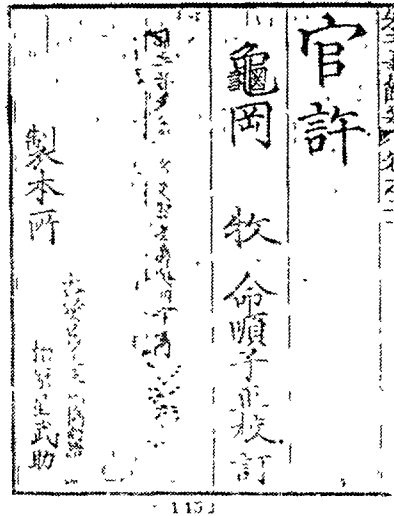


圖 23. 日本 明治刊本 卷之二十 第32張 裏面

다. 이 識의 글자 크기는 退溪가 쓴 글의 글자 보다 작은 글자를 쓰고 있다. 〈序〉 4張에 이어 〈朱子書節要總目〉 1張이 있고, 또 卷之一의 〈諸子目錄〉 2張이 繼續되어 있다. 〈諸子目錄〉 다음에 卷之一 第1張이 나온다. 이 第1張에는 前述한 다른 版本과는 달리 卷首題 다음行에

朝鮮 後學眞城李滉 編輯

이라는 著作表示가 들어 있다. (圖22 參照) 第1張 前面의 版式을 보면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匡: 19.7×14.4cm. 有界. 11行 22字, 註小字雙行. 句讀點·假名吐·返讀點有. 版心: 「朱子書節要」上 黑魚尾(單線. 單絲) 「卷之一」張次小字〈—〉 雙線. 下白口.

로 되어 있다. 이 版式으로 보아 〈序〉의 版式과 거의 같으며. 다만 本文 글자의 크기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版本의 特徵은 欄上의 註가 없으며, 避諱를 뜻하는 “熹”字 上下의 圓括弧도 없어졌고, 또 圓圈이나 墨等같은 傍點도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始作한 本文은 第30張으로 끝나고 있는 바, 參考로 第2冊부터 第19冊까지의 各冊 張數를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第2冊 目2+32, 第3冊 目1+33, 第4冊 目1+35, 第5冊 目1+20, 第6冊 目2+22, 第7冊 目2+43, 第8冊 目1+29, 第9冊 目1+35, 第10冊 目1+32, 第11冊 目2+42, 第12冊 目2+28, 第13冊 目1+32, 第14冊 目3+37, 第15冊 目1+20, 第16冊 目3+39, 第17冊 目3+36, 第18冊 目2+27, 第19冊 目2+41.

그리고 第20冊에는 〈諸子目錄〉 2張과 本文 28張에 이어, 錦溪 黃俊良이 쓴 〈星州印晦菴書節要跋〉· 高峯 奇大升이 쓴 〈定州刊朱子書節要跋〉· 黑岩慈菴이 쓴 〈朱子書節要跋〉 그리고 刊記가 있다. 이 마지막 跋들과 刊記의 張次表示는 卷之二十에 이어서 第29~32張으로 되어 있으며, 版心の 卷次表示도 「卷之二十」으로 되어 있다.

第32張 前面에 있는 黑岩慈菴의 跋에는 句讀點이나 片假名吐 그리고 返讀點도 없으며, 〈日本刻版 李退溪全集〉에 影印 收錄한 跋²¹⁶⁾과는 달리 文末의 날자 表示가 이어져 있다. 이 跋文의 날자가

寶永六年己丑秋九月黑岩慈菴跋

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明治刊本은 日本 寶永6年己丑(1709)에 伏見屋藤三郎가 刊行한 책을 底本으로 하여 새로이 刊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寶永6年刊本에는 退溪가 李湛에게 보낸 答書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明治刊本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除去하고 刊行한 것 같다. 黑岩의 跋이 있는 第32張 뒷面에는, 明治刊本の 校

216) 日本影印本, 上, p. 419下.

訂人과 製本所를 나타낸 글이 印刷되어 있다. (圖23 參照) 그 글에

官許

龜岡 牧 命順子正校訂

製本所 大阪堺筋通長堀橋南詰

柏原屋武助

라 있는 것으로 보아, 龜岡이 校訂한 것과 大阪에서 刊行하여 柏原屋에서 製本한 것을 알 수 있다.

16. 陶山書院刊 頭注削除 木板本

이 版本은 英祖19年癸亥(1743) 가을에 陶山書院에서 刊行한 版本과 同一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版本에 있는 頭注를 削除하여 印刷하였으므로, 여기에서 異本으로 다룬다. 이 頭注削除本은 다른 書誌에서는 陶山書院本과 同一本으로 取扱하고 있으므로 區分할 수 없으나, 實查한 것으로는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 所藏 華山文庫本²¹⁷⁾이 있다. (圖24 參照)

이 頭注를 언제 削除하여 버렸는지 알 수 없으나, 刷出된 印本을 보아 版木이 많이 傷한 뒤의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17. 光武8年(1904) 陶山書院 重刊 木板本

이 陶山書院 重刊本은 《韓國古書綜合目錄》에는 區分되어 記錄하고 있지 않으나, 《朝鮮典籍誌》에 따르면 國立中央圖書館 ·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 · 陶山書院 그리고 仁壽文庫 藏本이 알려지고 있다.²¹⁸⁾

實查한 것은 高麗大學校 藏本인바, 이에 따르면 크기는 세로가 32.8cm 가로(폭)가 20cm이며, 五針眼으로 製本된 線裝方冊으로 모두 20卷 10冊이다. 參考로 이 책 卷之一 第1張의 版式을 보면

四周双邊. 半匡: 19.65×16cm. 有界. 10行 18字, 註小字双行. 版心: 上下白口. 上下內向太四辨花紋魚尾(單線. 單絲)

와 같다. (圖25參照) 이 版本 卷首의 〈序〉·〈識〉·〈總目〉, 各卷首의 〈諸子目錄〉과 本文, 卷末의 錦溪·高峯의 跋들 그리고 李湛에의 答書까지의 차례와 張數는 陶山書院 初刊本과 같다. 그리고 高峯의 跋文 끝 다음行에 初刊本의 刊記도 그대로 雕刻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重刊本은 初刊本을 보고 다시 改刻 刊行한 것 같다.

이 重刊本이 初刊本을 보고 改刻하였다는 또다른 證據는 아래와 같은 版面의 比較

217) 請求記號, 좌산—D6—A7.

218) 註170 同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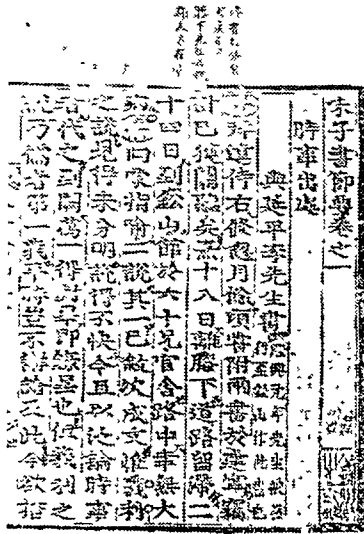


圖 24. 陶山書院刊 頭汪削除木板本 卷之一 第1張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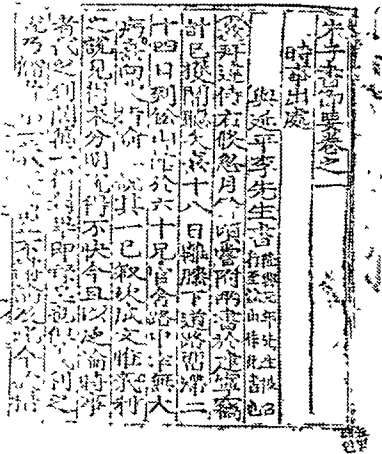


圖 25. 陶山書院 重刊 木板本 卷之一 第1張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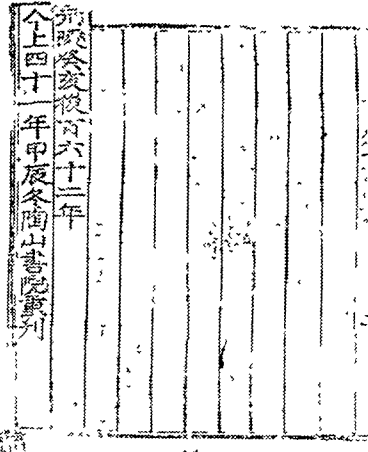


圖 26. 陶山書院 重刊 木板本 刊記

에서도 나타난다.

첫째. 重刊本에서는 頭註를 削除하여 없이 하였다.

둘째. 初刊本の 簡簡題 아래의 下向¹⁾魚尾를, 重刊本에서는 빼 버렸다.

셋째. 初刊本 第7行에서는 傍墨圈이나 傍白圓圈이 界線上에 表示되어 있는데, 重刊本에서는 行間속에서 處理하였다.

넷째. 重刊本에서는 第7行 第2字에 있는 避諱表示인 括弧를 없이 하였다.

그 밖에 書體上的 變化도 눈에 띄이지만, 가장 큰 差異는 版心에 있는 魚尾의 形態에서 나타난다. 즉 初刊本에서는 魚尾가 六瓣인데 比하여, 重刊本에서는 太四瓣으로 된 點이다.

그리고 初刊本은 高峯 奇大升의 跋文 끝의 空行에 刊記가 있으나, 重刊本에서는 李湛에게 보낸 答書의 第3張 뒷면에다 邊欄위에 한字씩 올려서 雙行으로 된 刊記가

元陵癸亥後百六十二年
今上四十一年甲辰冬陶山書院重刊

이라고 彫刻되어 있다. (圖26參照) 이 刊記에 따르면 元陵癸亥 즉 英祖19年癸亥(1743)로 부터 162年이되는 高宗41年甲辰 바로 光武8年(1904) 겨울에 陶山書院에서 重刊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重刊本의 版本은 《陶山書院要覽》에 따르면 陶山書院의 藏版閣에 그 全部가 保存되어 있다고 한다.²¹⁹⁾

18. 版本에 대한 總括

以上과 같은 17種의 版本들을 綜合하여 보면,

- ① 우리나라에서 刊行한 것은 12種 이고, 日本에서 刊行한 것은 5種이며,
- ② 活字本으로 印出한 것은 4種이 되고, 나머지 13種은 木板으로 刊行하였고,
- ③ 退溪 生存時에 刊行된 것은 4種이며, 나머지는 돌아가신 다음에 刊行된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版本들을, 二 底本들을 中心으로 系統을 보면, 다음 圖表1과 같이 됨을 알 수 있다.

Ⅱ. 朱子書節要 影響의 著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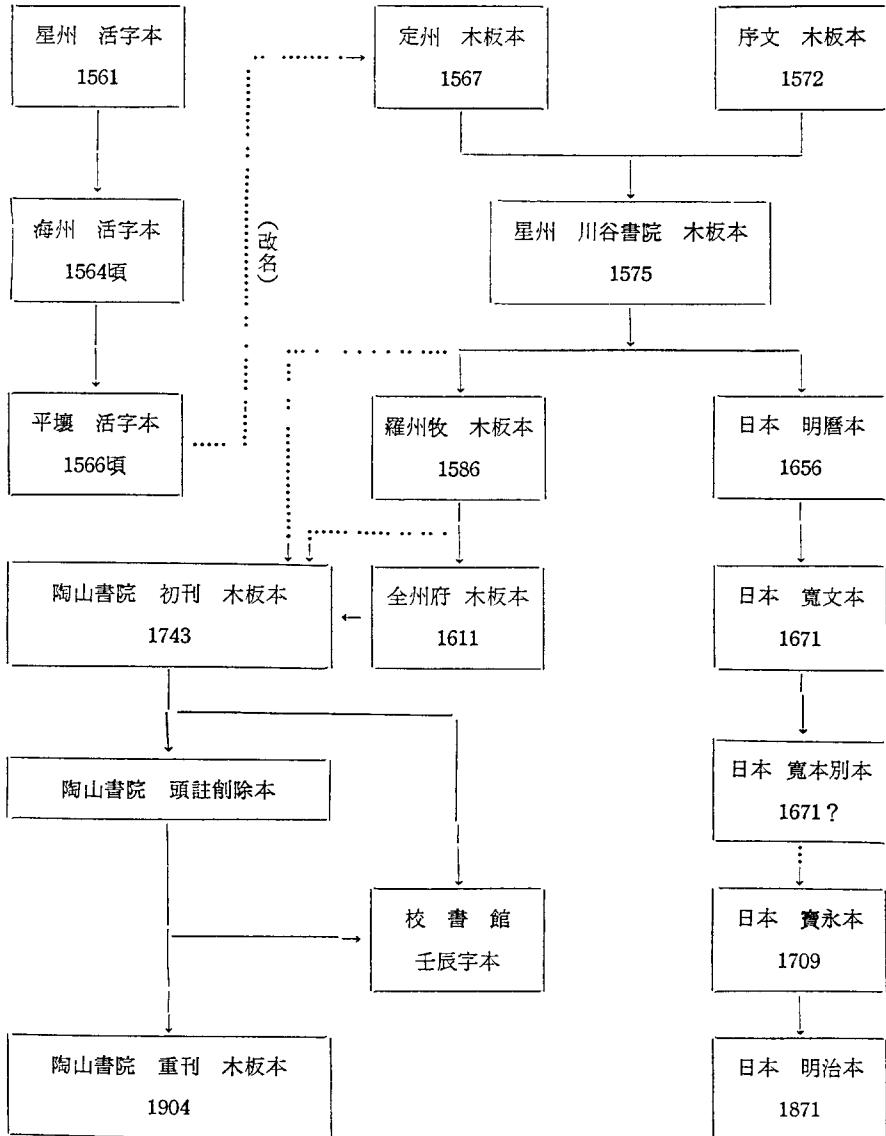
退溪가 編纂한 《朱子書節要》는 돌아가신 6年後인 宣祖9年丙子(1576)에 上疏에 따라 追獎의 議가 있는 자리에서도

朱書節其要 而聖學有所發者²²⁰⁾

219) 李源會, 陶山書院要覽 ([安東·同], 1975), p. 40.

220) 實錄, 21, p. 337下~333上. 宣祖 9年 丙子(1576) 4月 丁亥.

圖表1. <節要> 版本系統圖



이라고 《實錄》에 記錄하리만큼 되어 있었거니와, 後學에 끼친 影響이 매우 컸다고 하겠다.

이런 까닭에서인지, 《節要》를 본판 著作이 後學에 의하여 많이 이루어 졌다. 日本에서 이루어진 著作이나 影響에 대하여는 阿部吉雄의 《日本朱子學と朝鮮》²²¹⁾에 자세하므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著作만을 간단하게 紹介하되, 그 자세한 研究에 대하여는 後稿에 미룬다.

1. 朱子書節要文抄選

奎章閣에 所藏하고 있는 이 책을 實査하여 보면 木板本으로 되어 있으며 2冊으로 되어 있다.²²²⁾ 이 책은 刊行地未詳의 木板本을 다시 編纂한 것이다. 우선 이 《抄選》卷之一의 첫머리만 보면, 〈與趙帥書〉로 始作하고 있다. 이 書簡은 《節要》卷之二 第1張 앞면에 있는 書簡과 完全히 一致한다. 다만 다른 點이 있다면, 《抄選》의 卷首題와 다음 行에

朱子書節要文抄選卷之一

答文

이라 되어 있으니, “卷”以上の 글자들 2行을 墨書하여 오려 붙인 것이다. 그리고 版心の 上白口와 上魚尾를 除外한 版心部分을 먹으로 칠하여 버린 點이다.

2. 朱子書節要講錄

같은 奎章閣 所藏本中에는 寫本 1冊으로 되어 있는 이 《講錄》이 들어 있다.²²³⁾ 著者は 艮齋 李德弘으로 알려져 있으며, 上·下로 되어 있는 바 그 차례를 略記하면 아래와 같다.

上

卷之一 與延平李先生, 與陳侍郎, 등.

卷之二 與趙帥, 答梁鳳相, 등.

卷之三 答汪尚書, 與汪尚書, 등.

下

卷之四 答呂伯恭, 등.

卷之五 答陸子壽, 答陳同甫, 등.

卷之六 與籍溪胡原中, 與范直閣, 등.

卷之七 答表機仲, 答趙提舉, 등.

卷之八 答劉平甫

3. 朱子書節要質疑

前問恭作的 《古鮮冊譜》에 보면, 退溪의 弟子인 竹川 朴光前의 著作에 이 《質疑》가

221) 阿部吉雄, 前掲書, pp. 149~487.

222) 請求記號, 奎3967.

223) 請求記號, 奎3067.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²²⁴⁾ 《陶山及門諸賢錄》에도

…將歸 以節要初本八冊… 往復質疑 有節要 序後識…²²⁵⁾

라하여 이 著作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4. 朱書節要抄

《增補文獻備考》卷之二百四十六에 보면 退溪의 《朱書節要》 다음 行에

朱書節要抄一卷²²⁶⁾

이라 있어, 이 책이 退溪의 直接 著作이거나 抄本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前間 恭作은 그의 《古鮮冊譜》에서, 이 책을 李德弘의 《朱子書節要講錄》과 同一本으로 보고 있다.²²⁷⁾

5. 朱子書節略

《增補文獻備考》卷之二百四十五에 보면

朱子書節略二十卷 并 正祖庚申編²²⁸⁾

이라 있다. 正祖의 《羣書標記》에도 寫本으로된 이 책을 紹介하고 있다.²²⁹⁾

6. 朱子書類抄

《韓國典籍綜合目錄》第1輯에 있는 山氣文庫의 目錄에 따르면 寫本 5卷5冊이 들어 있다.²³⁰⁾ 實査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前記 5와 類似한 內容이 아닌가 생각한다.

7. 朱書百選

正祖18年(1794)에 丁酉字로 적은 6卷3冊本과 그 轉刻本 그리고 그 轉印本이 많이 模行하고 있다.²³¹⁾ 正祖의 《羣書標記》에 따르면,

朱子之學··牛毛之精 在於書牘..²³²⁾

이라 있다.

224) 前間恭作 編. 古鮮冊譜 (東京:東洋文庫, 1944~1957), 第二冊, pp.799~800.

225) 影印本, 四, p.344 上·下.

226) 增補文獻備考, 弘文館 纂輯 校正 (서울:亞細亞文化社, 1972), p.43下.

227) 前間恭作 編, 前掲書, p.

228) 註225 同書, p.39上.

229) 正祖, 羣書標記 (서울:學文閣, 1970, 影印本), pp.217~210.

230) 韓國典籍綜合目錄 (서울:國學資料保存會, 1974), 第1輯 山氣文庫目錄, p.114.

231) 註6 同書, p.644.

232) 正祖, 前掲書, pp.113~114.

8. 朱子會選

같은 正祖의 《羣書標記》에 의하면, 寫本 48卷을 紹介하면서

…先正 李滉之朱子書節要·務主精約… 今若一例·以集·書既成 總名之曰 朱子會選²³³⁾

이라 있다.

9. 朱文酌海

愚伏 鄭經世가 節要編纂한 것으로, 孝宗8年(1657)頃에 刊行한 木板本 16卷 8冊이 있다. 愚伏의 <年譜>에 따르면 光海14年(1622)條에

編次朱文酌海

先生以·節要 只取簡札·分作八冊 名之曰朱文酌海²³⁴⁾

라 있어, 《朱子大全》을 節要하면서 簡札까지 節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簡札은 《朱文酌海》卷之七~八에 들어 있다.

10. 節酌通編

尤菴 宋時烈이 編纂한 것으로, 肅宗12年丙寅(1686)의 《實錄》記事에

…金壽興曰… 宋時烈… 取朱書節要 <即李滉所編>及 朱文酌海<即鄭經世所編> 合爲一帙 名曰節酌通編…²³⁵⁾

이라 있어 알 수 있다. 《銚板考》에 보면

節酌通編三十六卷, 補遺七卷

本朝宋時烈編·

嶺南觀察營藏 <刊> 印紙五十五牒²³⁶⁾

이라 있어 嶺營에서 刊行한 木板本이 있으며 本編이 36卷 補遺가 7卷이 됨을 알 수 있다. 現存하는 木板本으로는 本編과 補遺가 合하여 25冊이 되는 책이 있다. 또 內賜記를 베낀 책 중에

康熙四十四年四月初四日 內賜 ..²³⁷⁾

라는 記錄이 있는 것으로 보아, 肅宗31年(1705)에 頒賜한 책도 있는것 같다.

233) 上揭書, pp. 250~252.

234) 鄭經世, 前揭書, 卷之五 第7張 뒷面.

235) 實錄, 39, p. 57. 肅宗12年丙寅(1680) 正月12日丁卯.

236) 徐有堯, 前揭書, p. 169.

237) 文化財管理局 藏書閣,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서울: 同, 1972), p. 1206.

11. 節要集覽

《韓國古書綜合目錄》을 보면 鄭榮振이 編纂하고 隆熙2年(1908)에 木活字로 印出한 1冊本이 알려져 있다.²³⁸⁾

12. 陸奏約選

正祖21年(1797)에 丁酉字로 印出된 이 책은 모두 2卷1冊으로, 正祖의 御定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羣書標記》에

…做先正李滉朱書節要…²³⁹⁾

라 있는 것으로 보아, 陸贄의 奏議를 《節要》를 본따 編纂한 것을 알 수 있다.

13. 退溪先生書節要

이 책은 大山 李象靖이 退溪의 書簡을 《朱子書節要》를 본따 編纂한 것이다. 木板木 10卷5冊으로 된 책이 남아 있다. 《大山先生實紀》에 의하면 英祖17年辛酉(1741) 6月條에

編次退陶書節要成

做朱子書節要 約成一奏 蓋爲十卷 至晚年愈加勘整²⁴⁰⁾

이라 있어, 大山이 編纂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같은 《大山先生實紀》에

己亥刊 退溪先生書節要 <十卷 五冊>²⁴¹⁾

이라 있어 光武3年己亥(1899)에 刊行된 것을 알 수 있다.

14. 朱門書類

李萬運의 文集인 《默軒先生文集》을 보면 이 책의 序文이 收錄되어 있다. 거기에서

…族叔晚覺齋 又獨取答問諸條 采而輯之… 朱子書… 我退陶李先生…²⁴²⁾

이라 쓴 것을 보면, 默軒의 族叔인 晚覺齋 李東汲이 編纂한 것으로 보인다.

15. 朱子語節要

《大山先生實記》의 英祖35年己卯(1759) 12月條에 보면

238) 註6 同書, p. 617.

239) 正祖, 前掲書, pp. 143~144.

240) 李象靖, 大山先生文集 (서울: 李中毅, 1972), 下, p. 1194.

241) 上掲書, p. 1205.

242) 李萬運, 默軒先生文集 (漆谷: 星巖齋, 1938, 木板本), 卷之七 第7~8張.

十二月編次朱子語節要...²⁴³⁾

라 있다. 大山 李象靖이 《退溪書節要》를 編纂하였으며, 또 書名도 類似한 것으로 보아 《朱子書節要》의 影響을 받아 編纂한 것으로 보인다.

16. 그밖의 著作들

以上에서는 根據文獻이 分明한 책의 書名만을 들어 略介하였으나, 《韓國古書綜合目錄》을 보면 그 書名만 보아도 《朱子書節要》의 影響을 받아 이루어진 著作이 여러 가지 눈에 뜨인다. 參考로 몇가지 적어두되 이 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後稿에 다시 完成할까 생각한다.

- 가. 朱文抄選, 宋時烈 編.
- 나. 朱書谷選, 金壽增 編.
- 다. 朱書講錄刊補, 李栽 編.
- 라. 朱書節要增解, 徐壽錫 編.
- 마. 朱書類彙, 編者未確認 編.
- 바. 朱書選要, 編者未確認 編.
- 사. 朱書要略, 編者未確認 編.
- 아. 朱書要類, 編者未確認 編.
- 자. 朱書分類, 姜浩溥 編.

結 言

以上으로서 退溪의 著作에 대한 綜合的인 存目과 《朱子書節要》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存目的 把握에 있어서는 退溪의 〈年譜〉에 있는 것은 前稿의 研究에 미루고 本稿에서는 두가지의 《退溪全書》와 《日本刻版 李退溪全集》에 影印 收錄한 內容을 더듬어 보았으며, 《韓國古書綜合目錄》에 記錄되어 있는 退溪의 著作이나 關係著作의 書名을 抄記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繼續하여 退溪의 著作이 더 나타날 可能性을 두가지를 들어 例示하였다.

本研究의 主體라 할 수 있는 《朱子書節要》에 대하여는 이를 五分하여 다루었다.

첫머리의 “朱子書와 退溪”에서는, 退溪가 朱子의 文集 특히 書簡과 接觸하게 된 境遇와 이를 耽讀하여 心醉한 事實과, 이를 教育의 基礎教材로 썼음을 밝혔다.

“朱子書節要의 成立”에서는 編纂하게 된 動機를 說明하고, 《節要》의 底本이 된 刊

243) 李象靖, 前掲書, p.1200.

本에 대하여 言及하였으며, 《節要》의 成立段階에 따라 ①批點과 註解, ②抄寫, ③對校와 批判, ④本文의 完成로 나누어서 說明하였다. 本文의 完成에 따른 弟子들의 轉寫와 退溪의 繼續的인 修改에 대하여도 言及하였다.

本文 以外에도 重要한 役割을 하는 〈序文〉과 〈諸子目錄〉의 完成에 대하여도 究明하여 보았다. 《節要》는 그 書名을 처음에는 “晦菴書節要”라 하였으나, 定州에서 刊行할 때부터 退溪가 改正한 “朱子書節要”로 바꾸었음도 알아 내었다.

“朱子書節要의 內容과 引用書”에서는 《節要》의 川谷書院本과 같은 內容인 日本影印本의 차례에 따라 ①退溪의 序와 高峯이 쓴 序의 識文, ②《節要》의 〈總目〉, ③本文에 대하여 그 內容과 차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本文의 抄集·註釋·〈諸子目錄〉의 例를 들어 보았다. 또 〈諸子目錄〉에 引用한 書名을 들었고, 그 중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 3種에 한하여 引用底本에 대하여도 알아 보았다.

“朱子書節要의 版本과 그 存本”에서는 알려진 17種의 版本을 들어, ①版本의 物理的 形態, ②現存與否, ③刊行의 動機, ④刊行者의 傳記, ⑤版本間의 相關關係 등을 밝혔으며, 現存本에 대하여는 理解하기 쉽게 圖示하였고, 마지막에 版本에 대한 系統圖와 統計를 내었다.

마지막으로 쓴 “朱子書節要 影響의 著述”에서는 《節要》의 編述에 影響을 받아 이루어진 15種의 著作을 紹介하였다. 그리고 《韓國古書綜合目錄》에서 추려낸, 影響을 받았을 著作 9種을 列舉하였다.

以上과 같은 研究는 退溪가 이루어 놓은 巨編의 著作中에서, 前稿와 더불어 겨우 一部分에 지나지 않는다. 이 研究를 行함에 있어서 資料入手의 困難등 여러가지 問題로 因하여, 充分한 研究가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 繼續되는 研究로서 補完할까 생각한다.

끝으로 이 研究를 이룩하도록 後援하신 政府機關과 協力하여주신 各圖書館司書, 이 研究를 配慮하신 退溪研究所 韓明洙 所長과 宋克燮 幹事와 各委員, 그리고 恩師 孫寶基博士·李載喆·鄭亨愚教授께 삼가 感謝드린다. (1978. 2. 9)

參 考 文 獻

- 笠井助治. 近世蕃校に於ける出版書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昭和 37.
 謙菴先生年譜. 純祖3 (1803). 木板本, 1冊.
 奇大升. 高峯全集.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同文化研究院, 1976. 影印本.
 金誠一. 鶴峰全集〈原文〉. 서울: 鶴峰金先生紀念事業會, 1976.
 金 傑. 海東文獻總錄. 서울: 學文閣, 1969. 影印本.
 道산서원중수지. [서울]: 문화공보부 문화계관리국, 1970.

- 松田甲. “自省錄と朱子書節要”, 日鮮史話, 第六編, (1930.3), pp.24~49.
- 徐有槩. 鑿板考, 洪命燾 校訂. 京城: 大同出版社, 昭和 16.
-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 東京大出版會, 昭和 40.
- 柳成龍. 西厓集.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58. 影印本.
- 尹斗壽. 平壤志. 서울: 平南民報社, 1964. 影印本.
- 尹炳泰. 朝鮮佚書誌. 未刊行原稿.
- 尹炳泰. 朝鮮典籍誌. 組版印刷中.
- 尹炳泰.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國會圖書館, 1968.
-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 尹炳泰. 韓國冊板目錄總覽. 未刊行原稿.
- 魚叔權. 攷事撮要. 서울: 南文閣, 1974. 影印本.
- 李象靖. 大山先生文集. 서울: 李中馥, 1972. 影印本. 2冊
- 李源會. 陶山書院要覽. [安東: 同], 1975.
- 李 滉. 日本刻版 李退溪全集, 阿部吉雄 編. 東京: 李退溪研究會, 1975. 影印本. 2冊
- 李 滉. 增補 退溪全書.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1. 影印本. 5冊.
- 正 祖. 叢書標記. 서울: 學文閣, 1970. 影印本.
- 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55~1958. 影印本. 48冊. 總索引 1冊.
- 朱 熹. 朱子大全. 서울: 曹龍承, 1977. 影印本. 3冊.
- 增補文獻備考, 弘文館 纂輯 校正.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影印本.
- 解題叢書. 東京: 慶谷國書刊行會, 大正14.
- 黃俊良. 錦溪先生文集. 丹陽: 英祖31(1755)跋. 木板本. 5冊.